

KOREA Sale FESTA

★ 2016 쇼핑관광축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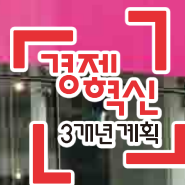
中国人超级大购物节

(Chinese Super Shopping day)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 가속
지진피해 복구 현장, 경주를 가다

기획특집 나를 바꾼 내 인생의 가을여행

10대 장기과제 성과 ① 비정상의 정상화
G-500, 이제는 평창이다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Young PLAZA

FESTIVAL



ENTERTAINMENT



SHOPPING



TOUR



ATTRACTION



코리아 세일 페스타

2016 쇼핑관광축제

9.29-10.31
www.koreasalefesta.kr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거는 기대



이중근
이탈리안 포차 리탈리 운영

● 요즘 경기 불황을 실감하고 있다. 이미 포화된 자영업 시장에 불경기라는 악재가 계속되면서 주변에도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뜰이나 장사는 안 되고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지만 뽕족한 대책도 없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서 긴 한숨만 내쉬고 있다. 개인의 힘만으로 이겨내기 힘든 장기 불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0월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그랜드세일’ 행사를 이미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첫 행사인 만큼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자영업자로서 작게나마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행사기간 동안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 등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쳤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경제 불황으로 푹 떨어졌던 소비 심리는 회복세를 보였고, 메르스 사태 여파로 줄었던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상당수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돈이 돌기 시작했고 동네의 크고 작은 자영업자들, 특히 외식업과 숙박업은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손님이 늘어났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걸음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올해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가 진행된다. 쇼핑은 물론 교통, 숙박, 공연, 전시, 문화, 체험, 식음료, 뷰티, 통신 등 쇼핑객의 거의 모든 접점을 아우른 할인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또한 쇼핑에만 국한된 다른 페스티벌과 달리 한류를 주제로 한 대규모 개막식과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열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나는 자영업자로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게 된다.

먼저 소비 심리의 불씨가 살아났으면 한다. 뉴스에서는 연일 소비 심리가 역대 최저라고 보도하고 있고, 자영업자인 나로서도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대대적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그 소비

“정부 주도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모두의 노력과 준비가 합쳐져 함께 웃을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가 또 다른 소비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기대된다. 이미 지난해 행사를 통해 관광객 유입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올 행사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길 기대해본다. 특히 국경절 연휴가 겹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지출은 기대해볼 만하다. 여행기간이 긴 만큼 소비 규모가 큰 그들의 욕구만 충족시켜준다면 자영업자로서 큰 매출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 주변의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전파하고 매출 증대도 꾀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많아졌으면 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통해 새로운 성공점과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를 본보기로 삼아 더 좋은 경제 활성화 행사와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다양한 계층의 기대에 걸맞게 잘 운영돼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바란다. 물론 자영업자들도 행사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행운이 깃들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의 노력과 준비가 합쳐져 함께 웃을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G



CONTENTS

- 01 이 주의 공감
- 04 독자마당
- 06 공감 사진관

이슈정책

- 08 대북 외교·경제관계 격하 요청, 유엔 회원국 퇴출 제기 등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로 대북 압박 가속
- 1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에 가다
기와자붕 무너진 천년 고도… 오래 걸려도 완벽히 되살린다
- 12 정부, 공공노조 파업 엄정 대처
“임금체계 개편은 구조개혁 핵심 과제
공공노조 파업은 나라 위기 가중시킬 것”
- 14 방산비리 척결, 전직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투명한 정부·올바른 사회 초석 다졌다
- 16 |기고|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헌법학) 교수
국가·미래 세대 위해 ‘꼭 필요한 일’ 해냈다

기획특집 | 내 인생의 가을여행

- 19 떠나야 보인다
- 20 히말라야 16좌 완등을 가능케 한 스무 살 설악산 등반의 추억
- 22 백룡동굴 물방울이 속삭였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 24 인생의 힘든 시기에 찾은 구룡포… 마음을 비우니 기회가 찾아왔다
- 26 두물머리 너머 경기 양평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 어릴 적 그 소녀를 만났네
- 28 가을과 책의 만남, 전국 문학관 여행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문학이 있는 곳



2016. 10. 03
No.373 | 통권 474
korea.kr/gonggam



표지 이야기

서울 명동의 한 대형쇼핑몰에 2016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발행일 2016. 10. 0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조윤선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044-203-3014)
제작협력 동아일보사 인쇄제본 삼화인쇄
구독문의 02-2625-3294, shgwak@korea.kr
구독 주소변경 신청 수신자부담 전화 080-851-0183



10



24



44

30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전국의 축제 현장 속으로 go go!

32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경북궁 야간 개장, 2016 미술주간, 불꽃축제
쇼핑 외에 문화 공연도 풍성해요

정책 일반

34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어떻게 즐길까
역대 최대 규모... 알뜰 쇼핑 곳 찬스!

36 공영홈쇼핑 개국 1년 만에 6147억 매출 달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제품 발굴로
소비자·스타트업이 상생합니다~

38 전국 76곳 1만6844가구 입지 확정
'행복주택' 전국 14만 가구로 확대

39 전세임대 임대료 최대 33% 낮아진다
10월부터 3만8000여 가구 혜택

40 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원스톱 서비스

41 보험계약 체결·청구 등 단계별 설명 의무 확대

중점기획 | G-500, 이제는 평창이다

42 5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국민 모두의 하나 된 열정으로
경제·평화·환경·문화 올림픽 만든다

44 평창동계올림픽 주인공은 바로 나
올림픽 3연패 노리는 빙상 여제 이상화,
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 스키레톤 윤성빈도 주목

46 미리 떠나는 올림픽 여행
평창·정선·강릉 명소도 보고 건설 중인 경기장도 보고

47 | 인터뷰 |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국가브랜드 가치 높이고 재도약 모멘텀 될 것"

문화, 교양, 인물 & 라이프

48 | 인터뷰 | 대학 캠퍼스 등에서 6개 푸드트럭 운영하는 함현근 씨
"푸드트럭에 패기와 문화 싣고 달립니다"

50 축구 해설위원으로 변신 '그라운드의 악동' 이천수
"마이크 잡았으니 화끈하게, 시청자 눈과 귀 사로잡아야죠"

52 지진으로 긴급대피 시 챙길 물품은?
비상식량·응급약·손전등·현금 등
'생존가방'에 담아 눈에 띄는 곳 보관

54 이제 '깜깜이 거래'는 그만,
중고차 시세 정보 확인하고 사세요!

55 "나중에 더 받자" 국민연금 재테크 인기
수령 연기 땀 연 7.2%씩 수령액 늘어나

56 문화재는 국가의 얼이자 민족의 자부심
이제는 지진대비책도 세워야 할 때다

58 군인 복지정책
경제적 복지에서 문화인권 복지로 발전
'군인 자긍심이 최강의 전투력' 인식

60 생활 속 '계단 오르기' 인기
틈틈이 오른 계단, 매일 좋아지는 건강

61 모르면 사라지는 각종 마일리지
똑똑하게 이용하면 짭짤한 보너스

62 생활과학 이야기

63 홀로공감

64 소통과 공감

알림 게시판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디지털로 만나는 <위클리 공감>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위클리 공감>의 주요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고 공유하세요.

<위클리 공감> 디지털 기사,
아곳에서 만나세요!



탭진 리디북스 블로그 페이스북

해당 서비스는 iOS,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누리집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koreablog.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드론 창조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내용 드론을 활용해 생활 편의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

응모 자격 제한 없음

접수 기간 10월 17일까지

응모 방법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누리집(www.kdci.or.kr)에서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은 뒤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

수상 혜택 대상 1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100만 원 수여 등

주 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문 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로봇산업진흥센터 공모전 담당자(032-260-0666)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

공모 내용 지진, 풍수해, 폭우, 폭설, 화재 등의 재난으로 발생한 학교시설 피해 및 예방에 대한 체험 수기, 그림, 캐릭터, 아이디어

응모 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접수 기간 11월 11일까지

응모 방법 작품을 분야별 규격에 맞게 제작해 공모전 누리집(www.edufacontest.com)을 통해 제출

수상 혜택 대상 3명에게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 수여 등

주 최 교육부

문 의 공모전 운영사무국(02-334-9044)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13일 오전까지 이메일(shgwak@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삼세판 퀴즈

371호 삼세판 퀴즈

정답

01 11 02 메이커 03 안중근

당첨자

공대호(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한창희(강원 황성군 갑천면 청정로)
이유정(대구 달서구 한들로)
김복덕(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창로)
김나라(경기 부천시 소사구 양지남로)

- 역대 최대 규모의 소방관광축제가 시작됐다.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 ○○○에서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10월 9일까지)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열렸던 코리아 불랙프라이데이보다 참가하는 업체와 할인 폭이 대폭 확대됐다.
-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동계올림픽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경제·평화·환경·○○ 올림픽이라는 4대 주제를 앞세워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공영홍쇼핑(○○○○)이 지난해 7월 개국한 뒤 1년 만에 614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새로운 유통채널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높은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업계 최저 판매 수수료율(23%)을 적용하고 오직 국내 중소·벤처기업 제품만으로 얻은 성과다.

<위클리 공감>을 읽어보세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칸의 답을 '삼세판 퀴즈 373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0월 13일 오전까지 이메일(shgwak@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우 30119)

바로잡습니다 본지 9월 26일자(372호)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주요 내용 및 Q&A' 기사 중 26, 27면에 가액 기준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22일 청탁금지법 매뉴얼 내용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초과 부분만 정산해 반환하도록 한다'로 바로잡습니다.

공감 카툰



2016 쇼핑관광축제! 흥겨운 대한민국을 경험하세요.

해내는 대한민국

도전하는 젊음은 아름답다. 발레리나 이은원을 보며 요즘 드는 생각이다. 얼마 전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이은원이 미국에서 명문 발레단으로 손꼽히는 워싱턴발레단에 입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순수 국내파인 그녀는 아직까지 해외 무대에 서본 일이 없기에 워싱턴발레단 입단은 큰 도전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국내 최고의 발레리나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실력파 무용수가 가득한 워싱턴발레단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은원은 머뭇거리며 망설이지 않고, 오히려 변화와 새로움을 꿈꾸며 발레리나로서의 또 다른 도전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발레리나 이은원은 워싱턴발레단으로 떠나기 전 인터뷰를 통해 “발레리나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레리나 이은원의 인터뷰를 보며, 내가 그와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가슴이 벅

발레리나 이은원의 아름다운 도전

찼다.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위해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렸으며, 머지않아 전 세계 실력파 무용수와 함께 워싱턴 무대에 서서 자신의 기량을 한껏 뽐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자랑스러운 한국의 발레리나다.

발레리나 이은원의 도전 소식을 접하면서 영원한 발레리나 강수진도 떠올랐다. 강수진의 인생 역시 아름다운 도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은 강수진은 30년 동안 예술혼을 불태웠던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을 떠난 뒤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역 무용수 시절 전 세계인의 큰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강수진처럼, 발레리나 이은원이 워싱턴 무대에서 크게 사랑받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로 활약할 길 기대한다.

| 김민정 주부





‘G-500, 이제는 평창이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주최로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행사 ‘G-500, 이제는 평창이다’에서 깃발무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뉴스1



대북 외교·경제관계 격하 요청, 유엔 회원국 퇴출 제기 등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로 대북 압박 가속



1 박근혜 대통령이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9월 2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네덜란드가 유럽 연합 차원에서 대북 제재조치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대니얼 러셀 미국 아·태담당 차관보는 9월 28일 전 세계 미국 공관을 통해 주둔국 정부에 대북 외교·경제관계 격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섫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 관계 격하를 공식 요청하며 북한을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조기 배치 카드도 꺼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퇴출 문제를 공식 제기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7일 청와대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의지와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네덜란드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필요한 제재와 외교적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핵·탄도미사일 개발자금 차단

한국 방어 위해 사드 한반도 조기 배치 추진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 서면

증언에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격하해달라고 요청하도록 공식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러셀 차관보는 하루 전인 9월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은행과 북한의 금융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거래망에서 북한을 배제하는 방안을 주요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의 석탄 수출자금과 해외 노동자 임금 등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일 3국과 유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에 대한 자금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은 더 강한 제재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 정권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와 협의 아래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미 양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러셀 차관보는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해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고,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의 국토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뒤이은 미사일 발사로 미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노스다코타 핵미사일기지를 방문해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핵 억지력을 제공함으로써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퇴출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상습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헌장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북한이 평화를 애호하는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북한의 유엔 회원국 퇴출 공식 제기

북한 문제의 심각성 부각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 이런 우리 주장에 대해 사전 협의했다”며 “관련국들이 우리 입장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유엔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당한 예방·강제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퇴출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안보리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총회에 출석해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퇴출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제명되지 않더라도 이번 언급은 또 다른 차원의 대북 압박으로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기록적인 홍수로 많은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에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경고나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이러한 광적인 집착과 의지를 꺾지 못하면 북핵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의지와 북한의 의지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의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네덜란드가 EU 핵심국가이자 2018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이 예정된 국제사회 모범국가로서 앞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은 물론, EU 차원에서 필요한 제재와 외교적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루터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깊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네덜란드는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대해 최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성명에서 수교 55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기로 했다. 또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재확인 등의 방침도 성명에 담았다. **6**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에 가다

기와지붕 무너진 천년 고도 오래 걸려도 완벽히 되살린다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 “이번 역은 신경주입니다.”

열차 창 너머로 드넓은 들판에 볼록 솟은 고분이 눈에 들어왔다. 방내리 고분군 1호 돌방무덤이다. 문득 마주한 기둥엔 십이지신상이 위풍당당하게 그려졌다. 역을 나와 10분가량 차를 타고 도심에 이르니 거리마다 무열왕릉, 선덕왕릉, 문무대왕릉, 김유신묘 등의 표지판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괜히 신라의 수도, 경주가 아니었다.

경주를 방문하기 전날, 경주시 관계자에게 “지진 이후 경주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는 “경주를 상징하는 한옥마을”이라고 했다. 발걸음을 황남동 한옥마을로 옮겼다. 그의 말마따나 전통 한옥이 밀집한 황남동 한옥마을은 신라시대 천년 고도의 미관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9월 26일 방문한 경주는 불과 14일 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해 보였다.

태풍 불기 전 공공시설·사유시설 응급조치 완료

기술자·공무원 80명 복구 구슬땀 “그래도 믿을 건 정부뿐”

민가로 발을 들이고서야 지진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통 한옥이 밀집된 황남동은 전체 3317채 중 한옥이 1658채다. 이 중 670여 채가 기와가 떨어져나가거나 벽에 금이 가는 손상을 입었다. 아직도 부서진 기와장이 골목 곳곳에 떨어져 있었다. 세 채 중 한 채는 지붕 위에 파란 천막을 덮었고, 그중 몇 채는 외벽에 접근 금지를 알리는 폴리스라인을 쳤다. 지진이 남긴 상처였다.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황남동 한옥마을에서는 전국기와기능인협회 와공 및 기술자 50여 명, 공무원 30명이 복구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보한 지붕 보수용 기와 7만7000장과 3억 원 상당의 지붕 보수용 장비인 ‘스카이’도 동원됐다.

마침 황남동경로당에선 기와가 놓일 바닥에 알매흙을 채우고 기와를 새로 끼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경로당 옆에 주차된 트럭에는 기와 수십 장이 쌓여 있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옥마다 규격과 종류가 달라서 기와를 확보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데다 기와장이까지 부족해 복구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완벽히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에서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것은 9월 12일 오후 7시 44분께. 규모 5.1 전진이었다. 48분 뒤인 오후 8시 32분엔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일주일 만인 9월 18일, 정부가 피해를 본 지역에 응급조치를 취했다. 무엇보다 태풍 ‘말라카스’가 불기 전에 조치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인력 6447명이 동원됐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문화재와 도로 등 공공시설 306곳이 전부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사유시설 5513곳 중 2956곳(53.6%)에도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주민 안옥경 씨는 “황남동주민센터 공무원과 군인들의 도움 덕분에 기와장이 떨어져나간 황남동경로당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기와담장에 균열이 일어난 곳을 보수했다”며 “이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 경북 경주시 황남동의 지진 피해를 본 한옥주택에서 기와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 2 불국사 다보탑의 상태를 측정하는 3D스캐너. 3 지진으로 땅이 갈라진 내남면 주택. 4 지진 피해 현장을 살펴보는 내남면사무소 직원들.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경주시 남쪽에 있는 내남면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지진은 인근 지역으로까지 퍼졌다. 황남동은 이곳에서 불과 7km 떨어졌다. 내남면 공무원들은 지진 발생 이후 2주가 지났지만 날마다 주민들의 집을 구석구석 살펴본다. 또 다른 지진 징후나 추가 붕괴된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주 시동에 거주하는 주민 유제대 씨는 “내남면사무소에 안전 진단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나흘 전 내남면 공무원과 지질 전문가가 나와 살펴본 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유 씨는 지진 때문에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 차츰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유 씨는 “그래도 믿을 건 정부밖에 없다”며 “우리는 더 굳건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22일 정부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주택 완전 파괴(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반파 이하 주요 구조물 파손은 100만 원이다. 주택 복구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연 1.5% 금리의 저리 대출을 해준다.

문화재청, 3D스캐너로 다보탑 안전점검

정부·지자체 각종 행사 경주서 개최하기로

재난이 터지면 항상 퍼지는 것이 유언비어다. 이번에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진짜 지진은 오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다. 정부는 피해지역의 주민은 물론 국민이 헛소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관광지도 회복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 불국사를 찾은 이날,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 2명이 3D스캐너로 다보탑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다. 스캐너에서 다보탑으로 레이저를 쏘 돌아오는 시간을 이전에 측정했던 데이터와 비교해 이번 지진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문화재의 지진 피해는 크지 않다. 불국사 대웅전 기와가 떨어지고, 다보탑 상층부 난간석 일부가 파손되는 등 2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경미한 수준이다. 불국사 측은 지진 발생 직후 “불국사 관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방문 예약이 대부분이 취소됐다. 불국사를 찾은 당일, 2시간여 동안 머물렀지만 관광객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불국사 종무소 정혜석 실장은 “문의전화 100통 중 90통은 관람이 가능하다고 문의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 관광객이 예전처럼 찾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불국사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를 가급적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협조로 경주가 명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만난 자연은 생각보다 훨씬 웅장하고 풍요로웠다. 그중 상당수가 천 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흔적이었다. 도시가 그토록 긴 시간을 품었다는 건 힘이 있다는 얘기다. 경주의 지진 피해는 조만간 복구될 것이다. 상경길에 오르기 전 경주 시내를 돌아봤다. 때마침 늦더위가 물러가고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려 운치가 더했다. **6**

정부, 공공노조 파업 엄정 대처

“임금체계 개편은 구조개혁 핵심 과제 공공노조 파업은 나라 위기 가중시킬 것”

©청와대



1



©동아일보

2

1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공노조 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 9월 27일 철도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며 공공부문 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9월 23일 공공금융노조에 이어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가세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임금 협상을 근거로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 기득권 노조에 대한 우려 표명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개혁의 필수 과제

이에 정부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철회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노조 파업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밝혔다. 9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 경제적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고용 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

을 벌이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뿌리 깊은 비효율도 걷어내고, 또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기업·정규직부문의 상위 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부문의 90%로 나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개편해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관계 수석실과 부처는 소관기관의 파업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파업 시에 필수 유지 업무를 비롯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국민을 볼모로 제 목만 채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9월 24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공노조의 파업을 언급하며 “가뜩이나 국가 경제도 어렵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

이는 도발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은 우리나라의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가 더 힘을 내지 않으면 이제까지 이뤄놓은 성과도 물거품이 되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의 약속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유 부총리 "집단 이기주의에 청년층 고용여건 악화" 비판

정부는 불법 파업이 벌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8일 오전 파업 동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 유지 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과 현대자동차 파업 등에 대해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번 파업으로 우리 산업과 청년층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미약했던 회복 모멘텀(동력)마저 잃게 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4차 산업혁명, 후발국 추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변화 물결 속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며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금융기관에 이어 철도와 지하철, 공공병원 등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선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이나 추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 경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리는 길은 구조개혁뿐"이라고 강조한 후 "경직되고 불합리한 임금체제와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9월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26위에 머물렀다. 임금 결정 유연성은 73위, 노사 협력은 135위에 그치며 전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부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우리 임금체제 연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그 혜택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집중됐다"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연공급 적용에서 배제되고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를 초래해 노동시장 격차 확대, 이중구조 형성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제 개편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높은 보수를 받는 금융기관과 고도의 고용 안정을 누리는 공공기관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노조 이기주의와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시장 때문에 기업들은 공장 신설 등 국내 투자와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관 고용노동부 장관도 9월 28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 모델 발표회'에서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현대자동차)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 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이러한 구시대적 교섭 문화와 쟁의행위 패턴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임금체제 개편, 원청과 하청의 격차 해소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교섭 문화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청년층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G**

- ▶ 1 비정상의 정상화
- 2 기초연금
- 3 공공개혁·공무원연금 개혁
- 4 노동개혁
- 5 자유학기제
- 6 위안부 협상 타결
- 7 사드 배치 결정
- 8 북한인권법
- 9 통진당 해산
- 10 동남권 신공항

방산비리 척결, 전직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투명한 정부·올바른 사회 초석 다졌다

박근혜정부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4대 개혁을 이뤄내는 등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10대 장기과제들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대 장기과제 성과를 연속기획으로 소개한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2015년 12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개혁과제들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이나 권력 남용에 대해 정상화를 강조하며 권력형 비리 척결과 공직자 윤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왔다. 특히 성역 없는 비리 척결과 과거부터 지속돼온 잘못된 규제와 규정, 비합리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초석을 다졌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은닉재산 환수, 방산비리 근절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부정부패 및 비리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사면 시행 등은 역대 정권에서 필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잘못된 규제·관행 개선 위한 법·제도 완비

체육회 통합으로 선진국형 선순환 체육구조 완성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168개국 중 3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 마련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정부는 2014년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 제한 대상을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 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 제한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기관 전체 업무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유착의 부작용 방지 및 공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를 기하게 했다.

또한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인허가나 인사 등 법에서 규정한 14가지 유형의 부정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도록 해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특히 이 법은 공직자 등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되게 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과 관피아방지법은 관행처럼 반복돼온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 진일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 5월 한 태권도 선수의 아버지가 심판의 편파 판정에 항

의하며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50여 년간 쌓여온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14년 2월 ‘승부 조작, (성)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를 4대 악(惡)으로 지목하고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그해 5월엔 경찰과 합동으로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을 발족했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459건에 달했다. 정부는 체육 비리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 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 비리 전담 수사기구 상시화 등을 통해 체육계 비리를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던 국민생활체육회를 올 3월 통합하도록 유도했다. 정부는 체육기구 통합으로 체육 비리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선진국형 선순환 체육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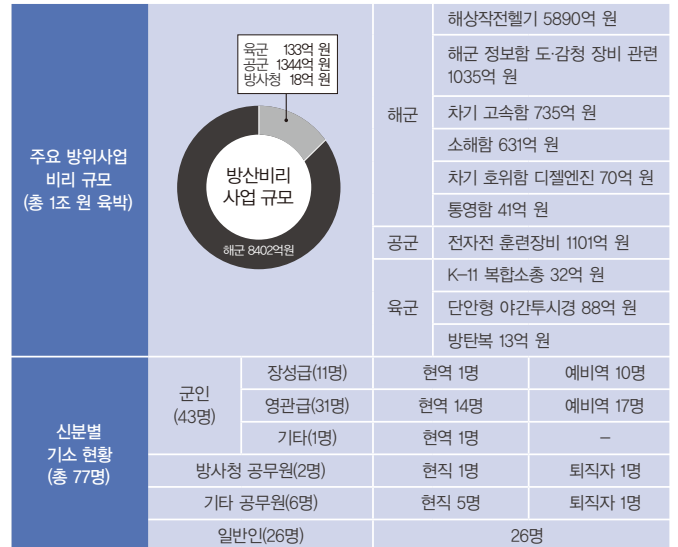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등 성역 없이 비리 척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서민생계형 사면, 불우 수형자 등 민생사면과 경제인 중심으로 단 세 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민생사면의 경우 부패, 강력, 국민 안전 위해, 사회 물의 사면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계형 사면과 초범, 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경제인 사면의 경우도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면 등은 철저히 배제했으며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생계형 범죄와 일상적인 경제활동 중 저지른 재산 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복권조치한 데 이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중소·영세 상공인과 농·어업인 등 1064명을 특별사면했다.

박근혜정부는 전직 대통령,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 등의 비리 척결에도 앞장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고액 벌금과 추징금 집행이 미미했던 역대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220억 원에 그쳤다. 이에 2013년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2013년 6월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한 데 이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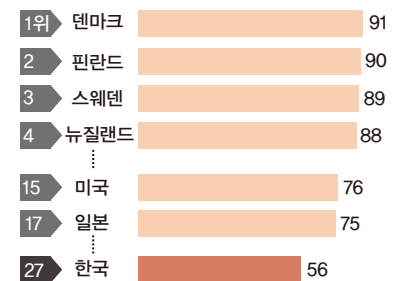
자료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창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공소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환수한 추징금이 2016년 9월 기준 1140억 원(전체 51.7%)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가 방위 역량을 훼손하는 방위사업 비리는 매국행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비리 사업 규모가 총 1조 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전면 수사해 전·현직 장성 11명, 영관급 31명을 기소했으며, 통영함·소해함 비리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비리,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비리 등 납품 비리를 낚날이 파헤쳐 경종을 울렸다.

더 나아가 방산 비리 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방위사업 비리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인적 쇄신 추진→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3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위사업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6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부패인식지수



자료 : 한국투명성기구

| 기고 |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헌법학) 교수

국가·미래 세대 위해 ‘꼭 필요한 일’ 해냈다

©동아DB



박근혜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2028년 시행 예정이던 계획을 14년이나 앞당겨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다.

● 마키아벨리는 사본오열돼 혼란에 빠진 이탈리아 반도에서 통일된 이탈리아를 꿈꾸며 지속가능한 정치체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끝에 1513년 <군주론>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백성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논하면서 “당위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위해 실제로 행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자기 보존보다는 자기 파괴로 향한다”고 주장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통치자는 그 일을 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좋은 정책일지라도 누군가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며, 때에 따라서는 그 반대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마키아벨리는 “악덕이 국가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그 때문에 비난받는 것에 움츠러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언급도 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덕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일이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두려워할 것은 오로지 훗날에 있을 역사의 평가뿐이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9월 9일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500년 전 이탈리아 반도의 상황보다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

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헌법 전문에서 인용)”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어느 정부든 그 일을 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드 배치, 통진당 해산, 북한인권법 제정...

우리 국민 안전과 북한 주민 행복 위해 불가피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우리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데 대응해 자위권적 조치의 일환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결정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또한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통합진보당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함으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해야만 했던 조치였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지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 것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지적했듯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좋은 게 좋지’ 하는 식의 타성 때문에 개선되지 않던 과제들이 우리 사회에는 도처에 널려 있었다. 각종 이익집단과 공직자 간의 유착과 이를 둘러싼 전관예우의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 구조화된 방위산업 비리는 우리 군의 전투력을 손상하고 국가 방위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했던 또 다른 적폐였다. 전면적 수사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방산비리를 적발한 것은 ‘만성화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 통합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자칫 국민의 준법정신을 약화해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조치다. 특히 재벌 총수나 고위층에 대한 사면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판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

화 등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돼왔다. 사면권의 '절제된' 행사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또 다른 노력이다. 또한 공소시효를 연장해 전직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한 조치(2016년 9월 현재 2205억 원 중 1140억 원, 51.7%)도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매년 늘어가던 공공기관의 부채를 강도 높은 재무건전성 관리로 2014년 7000억 원, 2015년 14조4000억 원 감축하고, 2012년 220%까지 치솟았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3년 만에 183%까지 축소했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해 현직 공무원은 물론 최초로 퇴직 공무원까지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시켜 더 내고(기여율 7→9%) 덜 받도록(지급률 1.9→1.7%) 하는 한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60→65세)해 향후 30년간 185조 원, 향후 70년간 497조 원 규모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이들 조치는 정부와 함께 일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으나, 이 또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무원연금 개혁, 위안부 협상...

역대 정부가 미뤘은 미해결 과제 과감히 단행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8년 시행 예정이던 기존 계획을 14년이나 앞당겨 453만 명의 어르신에게 종전보다 2배(9만900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다가오는 고령시대에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만 하는 과제였다.

한 국가의 생존은 일차적으로는 그 나라의 국방력에 달려 있으

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력에 달려 있다.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살아남기 어렵다. 국가도 어렵게 된다. 공정한 인사와 취업을 위한 지침을 시행(2016년 2월)해 능력 중심으로 인사 관리를 하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연봉제를 확산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과 장년층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토록 한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위안부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래 24년이 지나는 동안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의 뜨거운 과거사 현안이었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는 데 늘 걸림돌이 돼왔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은,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지라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행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김해공항의 수용 능력

부족 때문에 대두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이해관계인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였으나,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예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한 대로 객관적 조사 결과에 따라 10년간의 해묵은 지역 갈등을 정리했다.

우리의 자손들 세대에는 주입식 교육에 의한 지식보다는 창의성과 인간성을 갖춘 인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학교 3년 과정 중 한 학기는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유학기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다. **G**



2016년
대통령 관련기록물
기증 캠페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록을 찾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국정수행이나 당대의 주요 사건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대통령 재임 전·후의 개인 활동 등 대통령의 자취가 담긴 **모든 기록**을 기증 받습니다.

기증 대상 유형

가. 문 서 : 보고서, 편지, 일기, 메모, 수첩, 도면,
카드 등

나. 책 자 : 정부간행물, 대통령 관련 회귀도서,
조사·연구서

다. 시청각 : 사진, 필름, 앨범, 음성기록, 영상기록

라. 박 물 : 대통령상징물, 휘호, 기념품, 액자,
족자, 그림 등

주 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참여자격 제한없음(누구나)

기 간 2016년 9월 26일~10월 25일

※ 기록물 기증 신청은 연중 접수

기증절차

기증신청(신청서, 목록) ▶ 수집심의 ▶ 기증협의 ▶ 협약체결

유의사항

가. 기증기록물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야 함

나. 기증여부는 수집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 평가결과에 따라 기록물 기증이 제한될 수 있음

다. 기증이 결정된 기록물은 협약체결 후, 대통령기록관에
영구보존·활용됨

기증기록물 관리

가. 최첨단 시설에서 보존·관리

항온·항습설비, 보안·출입통제시스템과
매체별 전용서고 시설에서 보존·관리

나. 민감한 기록정보는 철저히 보호

기증기록물의 공개시기와 범위는 기증자와
협의하여 결정

다. 기증자 이름으로 영구히 보존·활용

기증자명으로 컬렉션을 만들어 보존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서비스

기증자 예우

가. 대통령기록관 '기증자의 전당'에 기증자 명패
헌액

나. 요청시 기증하신 기록에 대한 사본 제공

다. 기증기록물 시사회 및 전시회 등의 행사에 초대

문의처

Tel 044)211-2251.2247

Fax 044)211-2219

E-mail khyunjin65@korea.kr

※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a.go.kr)의

[기록갤러리 > 기증기록컬렉션] 코너 참조

기획특집
내 인생의 가을여행

떠나야 보인다

일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낯설다. 낯설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과 깨달음을 준다. 낯선 곳으로의 떠남은 곧 여행. 자연으로의 여행은 도시인의 막힌 가슴을 틔우고, 가족과의 여행은 인생의 의미가 '함께'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도심 속 여행, 홀로 하는 여행이라고 한들 왜 의미가 없겠나. 지금 두 발이 선 곳, 내 안으로 더욱 깊이 침잠하는 것 또한 어떤 의미에선 떠남이다.

푸른 하늘이, 청량한 바람이, 붉게 타는 나뭇잎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좋다. 떠나기에 더없이 좋은 가을이지 않은가. 지겨운 무더위가 사그라지고 성큼 다가온 가을 내음이 아직은 낯설다. 낯설어서 더욱 좋다. 다시 이 계절이 익숙해지기 전에 준비를 하자. 가을은 여행이다.

온 국민의 여행을 재촉하는 가을 여행주간(10월 24일 ~ 11월 6일)도 곧 시작이다. 농촌마을로, 전통시장으로, 사찰로 떠나보자. 올가을 새로운 추억 한 페이지를 장식할 특별한 행사와 주머니 가뿐한 할인 혜택이 여행객을 기다린다. 6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스무살 설악의 추억
히말라야 16좌 완등을 가늠케 한



©2015 DB

엄홍길 | 산악인

●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시간을 산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물다섯 살에 에베레스트산에 첫 도전장을 내민 이후 단 한 순간도 히말라야 16개 봉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좌 완등에 성공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 그런 나를 보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나요?”라고 물어본다. 그 이유는 나는 산에 미쳤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경기 의정부의 원도봉산에서 보냈다. 부모님은 산 중턱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식당과 숙박업을 하셨는데, 그 때문에 나는 산을 놀이터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산속에서 다람쥐와 토끼를 잡으러 다녔고, 산봉우리와 계곡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어느새 나는 내 또래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암벽 등반과 산타기 등을 잘 하는, 산을 좋아하는 소년이 돼 있었다.

이때까지는 산이 왜 좋은지 잘 모른 채 무작정 산을 타러 다녔던 것 같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상돈 씨가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내가 히말라야의 설산을 동경하게 된 것이 아마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그 때부터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등반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산악회 사람들과 함께 찾은 ‘설악산’ 등반은 나를 진정한 산사람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나서 나는 산악회 선배들과 가을 설악산 등반을 갔다. 그 전에도 몇 번 설악산을 가봤는데 이때의 등반은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할 만큼 여운과 감동이 컸다.

내설악 용대리에서 시작해 백담사를 지나 수렴동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이튿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가 좋다는 봉정암을 시작으로 소청, 중청, 대청을 거쳐 희운각 산장에서 두 번째 숙박을 하고 내려오는 코스였다. 이때가 10월 초였는데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멈춰지고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빼어난 경치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던 기억이 있다.

능선을 잇는 기암괴석과 암벽, 바위, 푸른 계곡물, 멀리 보이는

속초 바다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자체의 오묘함과 아름다운 울음을 내뿜고 있었다. 특히 가을산의 묘미는 바로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의 단풍이다. 나는 1급 청정수의 맑은 계곡물에 비치는 알록달록한 단풍잎과 파란 가을 하늘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곤 했다.

스무 살의 만추 등반, 잊을 수 없는 기억

가을 설악산 덕분에 산의 매력에 빠져

초봄, 여름, 겨울 등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명산답게 사계절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사실 설악산은 수없이 가봤다. 하지만 나는 스무 살 무렵 단풍이 무르익었던 ‘만추 등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감동과 여운으로 내가 산에 더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다.

가을의 설악산은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다. 형용할 수 없는 가을산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고 있으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 세상사의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작은지도 깨닫게 된다.

어린 시절의 나를 키운 것은 도봉산이고, 스무 살 청년 시절의 나를 키운 것은 설악산이다. 도봉산과 설악

산의 맑은 정기는 내가 히말라야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의 모태가 됐다. 산을 오르면서 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커졌고, 더 큰 세계를 탐험하고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그리고 히말라야에 발을 내디딘 뒤로는 히말라야에 중독돼 헤어 나오지 못하기도 했다.

누구나 살면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들이 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혹은 나 혼자만의 여행이 될 수도 있다. 산은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스승 같은 존재다. 수없이 많은 가을 여행지가 있겠지만, 산사람인 나는 만추의 절경을 자랑하는 가을 설악산을 추천한다. 언뜻 보면 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산에서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6

© B&B





©이진문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백룡동굴 물방울이 속삭여다

권지예 | 소설가

● 폭염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가을엔 왠지 들뜨지 않고 무언가 고적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을 하고 싶어진다. 단풍이 아름다운 산사(山寺)를 떠올려보지만 사실 그곳만큼 북적이는 곳은 없다.

몇 년 전 가을에 나는 한 기업체 직원들과 문학기행 행사의 일환으로 강원도 강릉지역과 평창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일종의 직원들을 위한 연수인데 그들이 작가인 나를 초빙해 강연도 듣고 1박 2일 힐링 여행을 함께하는 이른바 '감성연수' 프로그램이었다. 평창은 좀 낯설다 싶지만 강릉지역은 내가 10년 전에 1년간 머무르던 곳이었다. 그 근방의 대학에 교수로 적을 두고 있어서 서울의 집을 떠나 1년간 아파트를 얻어 살던 곳이다.

동해의 바다에 매료돼 내가 자주 찾은 곳은 삼척과 동해의 경계에 있는 추암 촛대바위였다. 그때만 해도 한적한 어촌인 그곳에 가서 바위에 앉아 파도치는 모습만 마냥 바라봐도 힐링이 되곤 했다. 그동안 그리웠으나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못했다. 연수 프로그램에 동행했던 그해 가을은 집필에 너무 치지고 건강도 좋지 않아 사는 게 이게 뭔가 하고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매사가 짜증이 나고 공연한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옥죄곤 했다.

다시 그곳에 발걸음을 한 게 10년 만이었다. 바다는 별로 변한 게 없었지만 그 사이 해안을 끼고 도는 삼척에 해양 레일바이크가 생겼다. 레일바이크를 타는 1시간 동안 바다와 해송 숲과 백

사장, 기암괴석 지대를 비롯해 해저도시를 연상케 하는 터널지대를 발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레일 위를 달리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사실 내가 강원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 그대로도 너무나 부족한 없는 아름다운 지방이라는 것이다.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음식도 산해진미가 고루 있으며 인심도 순박하다. 마치 요즘 흔치않은 자연미인을 보는 듯한 풋풋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하면 원시의 미, 그게 또 강원도의 힘인데, 웬지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보니 강원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웬지 살짝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암흑 속 적막의 순간에 느낀 깨달음

강원도의 자연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어

하지만 그해 가을의 여행에서 나는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깊이 매료됐던 곳은 동강과 백룡동굴이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지금도 이런 길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구불거리며 폭도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였다. 반대쪽에서 차라도 한 대 오면 난감하겠단 싶었다. 오른쪽으로 동강을 낀 길은 좁게 휘돌아 있어서 버스가 자칫 강에 떨어질듯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요즘에는 어딜 가나 관광지가 돼 있는 우리나라지만 그곳은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고적하고도 청정한 곳이었다.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탐사복과 장화, 헤드랜턴이 부착된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하고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일시불란하게 따라가야 했다. 단체로 동굴에 접근하려면 나룻배를 타고 가야 했다. 강도로 들어가는 광부들처럼 동굴로 들어가니 가을빛이 아름다운 바깥과 달리 동굴 안은 한 점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오래전, 발견되기 전에 동굴 입구는 한 소년의 놀이터였다고 한다. 탐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이 천연동굴에는 박쥐도 살고, 새우도 산다고 한다. 살아 있는 원시 동굴이며, 인공적인 조명이나 계단도 없다. 안전모에 달린 헤드랜턴으로 스스로 발밑을 밝히며 소위 말하는 개구멍이나 좁은 틈을 오로지 기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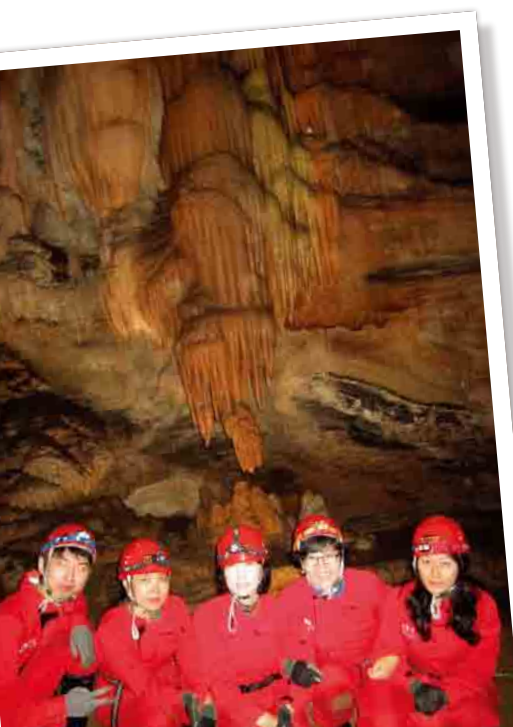
나 낮은 포복으로 겨우 몸을 움직여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저기서 안전모가 부딪히는 소리, 야앗!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뚱뚱한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소리도 들렸다. 이렇게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동굴은 처음이었다. 숨이 차오고 어느새 장화와 탐사복은 흠투성이가 되었다.

어느 순간, 탐사객을 모은 가이드가 헤드랜턴을 모두 끄라고 하자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눈을 떠도 절대 암흑이요, 눈을 감아도 절대 암흑이었다. 몇 분간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태곳적부터 종유석과 석순이 자라고 있는 이곳의 시간이 아득하게 여겨졌다. 살아 있으면서 절대 무(無)란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 대신에 어둠은 더 깊은 고요와 더 또렷한 소리를 들려주었다.

한참을 무의 세계에 있으니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툭, 툭, 툭... 그 소리가 노크를 하듯 뇌를 깨우자 오롯이 내 존재감이 이 절체절명의 어둠 속에서 느껴졌다. 한 방울의 물이 오랜 세월을 걸쳐 거대하고 희한한 종유석과 석순을 만들고 키우듯이 어찌면 내 존재가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겸허하고도 확실한 생각이 내 둔한 아집과 감각에 스며들었다. 순간, 세상 잡사와 근심이 먼지처럼 가라앉는 느낌이 왔다.

동굴을 나와서 다시 나룻배를 탔다. 나는 동강의 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은 투명한 유리처럼 맑았다. 얼마나 투명한지 강바닥의 모래까지 훤히 보이고 노니는 고기들까지 다 보였다. 게다가 너무 맑은 물이 깊기도 하다 보니 먼 곳의 물빛조차도 햇빛에 빛나는 에메랄드처럼 투명한 초록빛이었다. 동강은 래프팅으로 유명하지만 그곳의 가을 강물은 깊고도 맑고 그윽하기 이를 데 없었다. 투명하고 청명한 가을 햇빛이 물 위에 떨어지니 잔잔한 수면이 유려하고 은은한 광택마저 내뿜었다. 동강을 품은 산들은 단풍이 들어 울긋불긋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투명한 수면 위에 빨간 단풍잎 하나가 일엽편주처럼 흔들리며 떠 있었다. 그 단풍잎도 내 눈에는 보석이 박힌 것처럼 아름다웠다. 루비처럼 빨간 보석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갑자기 왜 그리 빛나고 투명해 보이던지. 어두운 동굴에서 나온 착시 현상과 대비 효과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원도의 자연은 나를 겸허하게 만든다. 때 묻지 않은 자연은 존재의 시원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가끔 글이 써지지 않을 때면 동강의 투명한 강물에 머리를 식히고 오고 싶어진다. 사는 일에 지치고, 글 쓰는 일이 허망하고, 풀리지 않는 슬럼프가 닥쳐 용기가 필요할 때는 백룡동굴의 어둠 속에서도 어느 한 순간, 짧지만 강렬했던 그 느낌을 떠올려보곤 한다. 한 방울의 물이 수억 년에 걸쳐 동굴을 만드는데,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물방울의 위로가 들려온다. [6]





마음을 비우니 기회가 찾아왔다
인생의 힘든 시기에 찾은 구룡포



©501DB

양준혁 | 전 프로야구 선수

● 1993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20년 가까이 '양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신나게 야구를 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2010년 9월 19일 30년 야구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다. 은퇴를 결심하고 올스타 시즌 중 나의 동지였던 삼성 라이온즈 구단과도 이야기를 마쳤다. 그런데 은퇴 전 광주에서 열린 마지막 경기 출전선수 명단에 내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그라운드를 밟고 팬들과 작별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기회조차 없이 쓸쓸히 은퇴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힘든 마음을 이끌고 이른 아침 포항 구룡포항으로 홀로 낚시여행을 떠났다. 아침에 찾은 구룡포항은 활기가 넘쳤다. 선선한 바람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이 얼어 있던 마음을 조금 녹게 했다. 바다 앞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낚싯대를 들고 물고기를 기다렸다. 천천히 출렁이는 바다와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사이에서 마음을 비우고 야구 인생 30년을 생각해봤다. 나는 정말 야구밖에 몰랐다.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13년 연속 올스타 선수에 선정되고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다시 생각해봐도 참 감사했다. 어렵פות 앞으로 은퇴를 하고서도 이렇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경기도 하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리니 씁쓸한 마음도 함께 몰려왔다.

30년 야구 인생 은퇴 앞두고 떠난 낚시여행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 걸려온 전화위복의 전화 한 통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염없이 물고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다. SK 와이번스 구단 매니저의 전화였다. 이번 올스타전 대구 경기에 출전하기로 한 선수가 몸을 다쳐 출전할 수 없게 됐다며 대체 선수로 경기를 뛰어줄 수 있냐는 게 주 요지였다.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었던 건 나를 야구의 길로 인도해준 은사이기도 한 김성근 감독의 추천 덕분이었다.

포항 구룡포항에서 그렇게 나는 전화위복의 순간을 맞이했다. 전화를 받고 나는 대구로 복귀해 마지막 올스타 경기에서 홈런을 치며 후련하게 경기를 끝내고, 다음 날 은퇴 발표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0년 9월 1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SK와의 은퇴경기에 3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그동안 맡았던 1루와 우익수, 좌익수 포지션을 골고루 맡아 소화하고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팬들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특히 은퇴경기에서 마련된 입장 수입 3000만 원은 전국 60여 개 청소년 야구팀의 꿈나무들이 펼 수 있는 청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하



는데 값지게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청소년 야구대회에서 아이들의 열정이 가득한 경기를 보고 느낀 감동이 계기가 되어, 이후 나는 감독·코치의 길이 아닌 멘토리 야구단 등 어려운 꿈나무들을 후원하는 길을 걷게 됐다. 나 자신이 야구로 꿈을 키우고 이뤘듯 야구로 아이들의 희망을 찾아주는 일이지가 후원 활동이 쉽지 않지만 보람도 크다.

누구나 위기의 순간이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 나는 오히려 어떻게 잘해내려고 억지로 노력하기보다 잠잠히 있기도 한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바닥을 치면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침착하게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의 순간은 찾아온다.

지금도 힘들 때면 포항 구룡포항으로 떠난 짧은 여행이 생각난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기쁨과 환희의 기회가 찾아왔고, 반나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인생이란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기에 여운이 크다.

나는 아직도 구룡포항을 자주 찾는다. 물론 그 당시와 같은 감정을 또다시 느낄 수는 없지만 이제 새로운 구룡포항의 매력이 나를 즐겁게 한다. 싱싱한 대게나 과메기는 물론 낚시로 갓 잡은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은 별미 중의 별미다.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그리고 거친 파도와 시원한 바람은 물고기를 낚는 사람에게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준다. 가끔씩 일상을 떠나 만나는 자연과의 특별한 대화가 바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여행과 인생은 닮았다. 그리고 자연과 인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연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느낄 수 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맞았을 때, 절망하기보다 가만히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 마음을 비우고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내 야구 인생을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포항 구룡포항의 여행처럼. **6**

두물머리 너머 경기 양평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 어릴 적 그 소녀를 만났네

책은 글로 하는 여행, 여행은 발로 읽는 책이라고 했다가. 책장도 바람이 넘겨주는 가을, 문학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몸과 머리가 한 번에 충만해질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체험이다. 작가의 삶, 작품의 숨결, 고장의 넉넉함까지 아우르는 문학관 여행. 이보다 더 낭만적인 발걸음은 없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 제공·소나기마을

● 때마침 자주, 소나기가 내리는 나날이었다. 더욱이 더디게 사그라지는 여름 더위 탓에 갑자기 내려 더욱 반가운 소나기는 갑자기 그쳐 아쉬움이 컸다.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를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보았을 뿐인 소설 '소나기'가 그랬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소설이 주는 뭔가 아쉬운, 어딘가 아릿한 느낌만은 또렷했다. 특히 소나기를 피해 소년과 소녀가 수숫단 속으로 숨어드는 장면, 불어난 냇가 위 징검다리를 건너는 장면은 영화 속 장면마냥 여전히 뇌리에 박혀 있다. 몸 밖에 이는 시원한 바람과 몸속에 스미는 서늘한 바람이 어디로든 떠나고 싶게 만드는 가을 녀, 발걸음은 '소나기마을'로 향했다.

소나기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황순원문학촌'이다. 이름만 보아도 '소나기'가 작가 황순원(1915~2000)의 대표작임을 가늠케 한다.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소나기마을로 가다 거치는 곳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하늘과 산과 강이 검푸른 빛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풍광이 여행의 설렘을 한껏 고조시킨다. 강 따라 발을 굴리는 자전거 여행객들의 행렬도 차창 밖 한 폭의 그림이다. 소설 속 소년과 소녀가 이곳에서 뛰놀았으리라.

초판본·원고·서재 등 황순원 작가 일대기 조명

'독 짓는 늙은이' 조형, '카인의 후예' 영화 등 전시

누렇게 익어가는 벼와 진분홍색을 뽐내는 코스모스 사이로 난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면 언덕배기에 소담한 소나기마을이 나온다. 푸른 잔디 위에는 원뿔형의 수숫단 몇 개와 원두막이 웅기종기 세워져 있다. 이곳 소나기광장에는 1시간마다(낮 12시~오후 4시 매시 정각) 소나기가 내려 소설 속 소년과 소녀가 비를 피해 원두막에서 수숫단 속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재현해볼 수 있다. 어릴 적 순수했던 그 시절의 소년과 소녀로 돌아가는 것은 이곳을 찾는 모든 이의 바람 아닐까.

정시가 되기 전 황순원문학촌 내에 자리한 황순원문학관부터 둘러보기로 했다. 이곳 역시 수숫단을 형상화해 원뿔형으로 지어졌다. 내부에 들어서니 햇빛을 그대로 담을 수 있도록 머리를 연 천장 아래로 작가의 친필로 글귀를 새긴 대형 유리 조형물이 시선을 잡는다. 그 아래로는 작가의 생애와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일생을 통해 시 104편, 단편소설 104편, 중편소설 1편, 장편소설 7편을 남겼다는 작가. 유리관 안에 진열된 작품의 초판본과 원고지들이 어떻게 빛이 바라는 동안에도 문학은 더욱 가



원두막과 수숫단이 웅기종기 자리한 소나기광장에는 매시 정각 소나기가 내린다.

❶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는 소나기마을이 있다. ❷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한 소설 '소나기'는 영화와 뮤지컬 등으로 만들어졌다.



치를 더해가는 듯했다.

작가는 일제강점기 말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시대와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간결한 문체와 시적 서정성으로 표현해냈다. 단편 '독 짓는 늙은이' 속 옹기장이 송노인을 빛은 문학관 전시 작품에선 가정의 파탄과 병고 앞에서 일생을 바친 작업에 한계가 왔음을 깨닫는 한 인간의 쓸쓸함이 읽히고, '학' 속의 단짝친구 성삼과 덕재를 형상화한 조형에선 매정한 이념과 그 속에서도 메마르지 않은 휴머니즘이 배어나온다. 토지개혁이 시행될 무렵의 북한을 배경으로 한 '카인의 후예'는 영화로 만들어져 고통스러운 역사의 격동에 맞선 인간애를 담은 필름을 작은 스크린에 돌리고 있었다. 짙은 갈색 나무로 만든 책장과 책상이 우두커니 자리한, 트렌치코트와 두루마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작가의 서재를 보고 있자면 결국 작품에 드러난 올곧은 정신과 따뜻한 인간애가 작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한다.

이 밖에도 문학관 안에는 연극 등으로 제작된 작가의 작품이 끊임없이 상영되고, '소나기' 속 소년과 소녀가 공부했던 옛날 교실도 꾸며져 있다. 이쯤 되면 가슴속에건 머릿속에건 아름다운 문장 하나 떠오를 법하다.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써 우체통에 넣었다. 아득한 첫사랑 대신 지금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는 이곳에서 보내준다고 한다.

매시 정각 소나기... 수숫단 속에서 빗소리 감상 '너와 나만의 길' 도랑 걷고 '고백의 길'서 알밤 줌

'우르르 쿵' 하고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소리가 난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정각이다.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원두막으로, 수숫단 안으로 몸을 숨긴다. '짜-' 하는 소리와 함께 네 개의 물대포에서 번갈아 물줄기가 뿜어져 나온다. 짜-좌-좌-좌-. 몸집이 커진 소녀는 수숫단으로는 못 가고 원두막 우산 아래 있어야 했지만, 잔잔한 음악과 함께 흠뻑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만은 소녀가 된 듯 설렜다. 어린아이들은 외려 비를 맞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잔디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는데 소설 속 고요하고 애잔한 풍경

은 아닐지라도 이 또한 정겹고 가슴이 벅차다.

소란한 수숫잎 소리가 그치고 광장의 하늘이 푸르름을 더할 때면 소나기마을의 뒷길을 산책하기에 제격이다. '소나기' 등 황순원 선생의 작품 속 장면을 주제로 산책로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소년이 소녀를 등에 업고 물이 붙어 있는 도랑을 건너던 장소를 재현한 '너와 나만의 길', 소년과 소녀가 꽃을 꺾으며 가까워지기 시작한 장소를 꾸민 '들꽃마을' 등.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뭉을 같다.'

산책로 곳곳에 쓰인 소설 속 문장 하나하나에 마음이 가 박힌다.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다면 문장이 먼저 와 닿았겠지만 발걸음 옮기며 읽는 책 여행에선 내가 먼저 문장 속으로 들어간다.

'고백의 길'에서는 소녀가 건넌 대추와 소년이 따던 호두와 밤을 직접 딸 수 있다. 소설에서는 집안 사정이 나빠져 이사를 가게 된 소녀가 소년에게 집에서 딴 대추를 내어준다. 산책로도 여기에서 끝이 난다. 바닥에는 누군가 알밤을 채가고 남은 밤송이들이 굴러다녔다. 뒤에 올 이들을 위해 나무에서 따는 대신 주머니 속에 있던 밤을 꺼내 먹었다. 산책하며 만난 아주머니께서 직접 밤나무를 심어 딴 것이라며 쥐여주신 밤이었다. 집에서 직접 썬 알밤은 부드럽고 고소했다.

소설 속 소녀는 양평읍으로 이사를 가기 전 이야기한다. '왜 그런지 난 이사가는 게 싫어졌다고, 어느새 소녀가 된 소설 밖 그녀도 생각했다. 왜 그런지 양평에 더 머물고 싶어졌다고, 여행은 소설보다 정겹다. 6

소나기마을

주소 경기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마을길 24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문의 031-773-2299/ www.sonagi.go.kr

관람 오전 9시 30분~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무)

가을과 책의 만남, 전국 문학관 여행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문학이 있는 곳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장을 대표하는 문인과 문학을 기리기 위해 문학관을 마련하고 있다. 문학관은 작가의 문학과 생애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된 새로운 개념의 문학공간이다. 더욱이 문학관은 작가의 정신과 문학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작가가 나고 자란 지역의 자연 속에 자리해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 글 따라, 길 따라 전국으로 떠나보자.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1



2

1 강원 평창군 봉평에 위치한 이효석문학관은 주변으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들이 보존되어 있다. 2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안에 자리한 최명희문학관에서는 17년간 소설 '혼불' 집필에만 매진한 소설가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3 충북 옥천군 정지용문학관에 가면 손바닥을 스크린 삼아 '향수'의 시어를 음미하는 체험을 해보자.

이효석문학관

우리나라 현대 단편문학의 대표작인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듯 소금을 뿌린 듯한 메밀밭 언저리에 앉아 문학의 향기에 젖을 수 있는 곳이다. 총 10개의 전시실에는 이효석(1907~1942)의 사진과 육필 원고, 초간본 등이 가득 전시되어 있어 작가와 작품세계, 당시 문학계를 품어볼 수 있다. 특히 고향 강원도 봉평에 대한 작가의 추억, 봉평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 대한 설명은 문학 여행으로 흠뻑 빠져들게 한다.

더욱이 주변은 문학관을 포함한 이효석 문학비, 이효석 생가마을, 이효석 문학의 숲 등이 어우러져 '효석문화마을'로 조성돼 있다. 선생이 태어난 생가는 비록 험했지만 터는 남아 있어 그 향기를 느끼기에 충분하며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메밀꽃 필 무렵'에서 성서방네 처녀와 하생원이 사랑을 나누던 물레방앗간, 물에 빠진 하생원을 동이가 업고 건너며 혈육의 정을 느끼던 여울목, 하생원과 같은 장돌뱅이들이 난전을 펼치던 봉평장 등 문학의 숨결이 여전히 살아 있다.

주소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효석문학길 73-25

문의 033-300-2700, www.hyooseok.org

최명희문학관

최명희(1947~1998)는 영면하기 전까지 17년간 총 5부 10권 108장으로 구성된 소설 '혼불'의 집필에 매진했다. 작가 자신의 혼불이 오롯이 간직된 곳 전주, 전주 한옥마을 안에 들어선 최명희문학관은 사당처럼 적막한 곳이 아닌, 찾는 이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살아 있는 문학의 생산 거점이다. 문학관은 작품보다 작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녹록지 않았던 작가의 삶과 흔적이 담긴 엽서와 편지, 생전의 인터뷰, 문학 강연 등에서 추려낸 말과 글이 담긴 동영상 등을 통해 작가를 소환한다. 소설 필사하기, 작가의 친필 서체로 복주머니 만들기, '혼불'을 한 장의 소책자로 만드는 일일 출판사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낸 작가를 기린다.

10월 7, 8일에는 혼불문학 강연과 전주, 남원 일대를 탐색하는 혼불문학기행 행사가 열린다. 제6회 혼불문학상 시상식과 혼불음악제도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문학관과 전주 한옥마을을 일대 최명희길에서 즐길 수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

문의 063-284-0570, www.jjhee.com



정지용문학관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는 '향수'로 잘 알려진 시인 정지용(1902~1950)이 나고 자란 고향이다. 정지용 생가 옆에는 정지용 시비와 정지용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고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정지용문학관이 이웃해 있다. 문학전시실은 지용 연보, 지용의 삶과 문학, 지용 문학 지도, 시·산문집 초간본 등을 전시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손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시를 읽고 뮤직 비디오로 제작된 '향수'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에선 도시인들도 시에 흠뻑 취할 수 있다.

시인의 삶과 문학, 인간미 등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상을 감상하고 시 토론,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열린 문학공간도 마련돼 있어 문학을 좋아하는 이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한편 옥천에서는 매년 5월 지용제가 열린다. 이 시기 지용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날 하루,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문학특어 기차 레이디버드에 오르면 문인들과 함께 시를 낭송하며 옥천을 향해 달리는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다.

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문의 043-730-3408, jiyong.or.kr

윤동주문학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아름다운 시(詩)가 있는 곳. 문학관이 자리한 서울 종로구 청운동은 지대가 높아 어느 쪽으로 눈길을 두어도 자연을 마주할 수 있을뿐더러, 소규모 갤러리와 공방이 어우러져 있어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인왕산 자락길의 초입부에 위치한 윤동주문학관 또한 청운동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볼거리. 인왕산은 시인이 연희전문(현 연세대) 시절 서촌에서 하숙하며 자주 오르던 곳이다. 이곳에는 식민지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며 모국어로 시를 쓰다 비참하게 요절한 청년 시인 윤동주(1917~1945)의 일생이 잘 담겨 있다.

문학관은 인왕산 중턱 마을까지 물을 퍼 나르던 청운수도 가압장을 보수해 마련했다. 특히 가압장의 물탱크로 쓰였던 공간에 천장을 뚫어 자연을 그대로 만끽하게 한 제2전시실이나, 어두컴컴한 공간에 한 줄기 빛만이 들어오게 한 뒤 시인의 일생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제3전시실은 청년 시인의 감수성과 고뇌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문학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시인의 언덕'과 마주하게 되는데, 윤동주 시인이 시정을 다듬던 곳으로 청년 시인의 힘찬 맥박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 올라 바위에 작가의 친필로 새겨진 '서시'를 읊조려보자.

주소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19(청운동 3-100)

문의 02-2148-4175, www.jfac.or.kr

지훈문학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우거진 숲의 고장. 경북 영양군 주실마을은 350여 년 전 한양 조씨가 입향하면서 생성된 집성촌으로 청록파 시인이자 '승무'의 시인 조지훈(1920~1968)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에서는 주실숲을 '시인의 숲'으로 부르며 보존하고 있으며 숲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조지훈 선생을 기리는 기념 시비와 무대를 마련해 문학 해설이나 백일장 등을 열고 있다.

부인 김난희 여사가 직접 현판을 쓴 문학관에 들어서면 170여 평 규모에 단층으로 지어진 목조 기와집이 'ㅁ'자 모양으로 방문객을 에둘러 맞이한다. 문학관에는 시 '승무'가 흘러나오고, 동선을 따라 조지훈의 삶과 그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다. 시인의 소년 시절 자료, 광복과 <청록집> 관련 자료, 가족 이야기, 조지훈의 선비로서의 삶의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시인이 30대 중반에 썼다는 검은색 모자와 가죽 장갑, 40대에 사용했다는 부채, 세상을 뜨기 6~7년 전부터 애용했다는 담배 파이프와 안경 등을 비롯해 외출할 때 즐겨 입었던 외투와 삼베 바지 등을 보노라면 방문을 열고 선생이 걸어 나올 듯한 느낌마저 든다. 문학관 한쪽 벽면에 그의 삶의 단상을 보여주는 100개의 사진과 그 맞은편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투병 중 그가 여동생(조동민)과 함께 낭송한 시 '낙화'도 생생하다.

주소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55

문의 054-682-7763, jihun.yyg.go.kr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전국의 축제 현장 속으로 go go!

폭폭 피던 폭염이 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귓가에 살랑거리는 계절이 왔다.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도, 연인과 함께 데이트하기도, 친구와 함께 산책하기도 좋은 때다. 높고 파란 하늘에 마음까지 설레는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과 전국의 유명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자.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함께 진행되는 전국의 지역별 축제들을 소개한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 제공·코리아 세일 페스타 사무국

부산 앞바다를 뜨겁게 달굴 핫한 축제들

먼저 아시아 최고의 영화 축제인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는 아시아필름마켓, 아시아영화아카데미, 아시아영화펀드, 핸드프린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또한 '부산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대중화, 즉 일상 속의 예술 실현을 목표로 하며 실험적인 현대미술 교류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부산과 한류의ダイ내믹한 이미지를 세계로 전파해나갈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도 개최된다. 부산 앞바다를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축제도 열린다. 매년 10월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불꽃축제는 다양한 불꽃은 물론 화려한 레이저쇼 등도 선보인다. '부산아시아송페스티벌'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들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

부산국제영화제 10. 6~15 / www.biff.kr

부산비엔날레 ~11. 30 / www.busanbiennale.org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10. 1~23 / bof.or.kr

부산불꽃축제 10. 22 / www.bff.or.kr

부산아시아송페스티벌 10. 7~9 / asiasongfestival.co

대구에서 오페라와 패션 축제 즐기기

대구에서는 제14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2016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는 푸치니의 '라 보엠'을 개막작으로 '파델리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토스카'가 이어지며, 폐막 무대는 오페라 '카르멘'이 장식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2016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은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패션·문화 융합 축제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10. 6~11. 5 / www.daeguoperahouse.org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10. 1~7 / www.dicf.com



대전에서 세계의 와인도 마시고 비즈니스도 하자

201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덕특구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혁신기술을 통해 미래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우고 배우면서 체험할 수 있는 축제다.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 세계 와인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대전국제와인페어'도 열린다. 이번 와인페어는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각국의 문화와 와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며, 와인산업 종사자에게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10.22~25 / www.djst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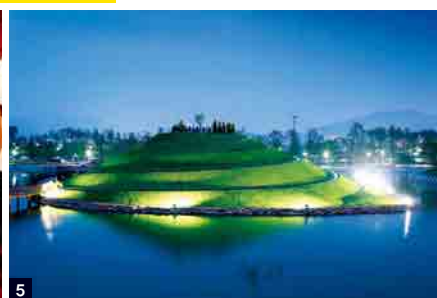
대전국제와인페어 10.28~30 / www.djwinefair.com

세종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문화축제 한마당

세종시에서도 다양한 축제들이 진행된다. '세종민속문화축전'에서는 세종시의 민속문화를 재조명하고 제4회 세종축제(10.7~9)와 연계해 세종대왕 어가행렬 재현, 전국 중요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및 축하 공연 등 시민 참여형 민속문화축제가 개최된다. 또한 '2016 문화의 달' 행사에서는 '세종, 문화의 옷을 입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 체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세종축



1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10월 22일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축제가 열린다. 2 제주에서는 10월 29~30일 최정상의 한류 스타들이 함께하는 한류 콘서트 KCON이 개최된다. 3 울산에서는 10월 7~9일 한글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세계에 알리는 한글문화예술제가 열린다. 4 진주에서는 10월 16일까지 소원을 써넣는 유등을 강물 위에 띄우는 유등축제가 준비돼 있다. 5 전남 순천에서는 10월 15~30일 순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예술축제인 '세계환경생태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제'는 세종대왕과 관련된 한글, 과학, 인물을 연상할 수 있으며 세종시에 관한 다양한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대표축제이다.

세종민속문화축전 10. 7~8 / www.sejong.go.kr

문화의 달 행사 10. 14~16 / blog.naver.com

세종축제 10. 7~9 / www.sejongfestival.kr

풍기에서 인삼 먹고, 청도에서 반시 먹고

축제에서 먹거리의 즐거움을 빼면 섭섭하다.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경북 영주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인 '풍기인삼축제'가 열린다. 풍기인삼축제에서는 최고 인삼 콘테스트, 인삼 씨앗 뿌리기, 인삼 요리 경연, 인삼 캐기 체험 등의 행사는 물론, 직접 인삼을 캐고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청도에서는 반시축제가 열린다. 전국에서 씨 없는 감으로 유명한 청도반시를 맛볼 수 있으며, 감 따기 체험과 감잎차 다도 체험 등의 부대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풍기인삼축제 10. 15~23 / www.ginsengfestival.com

청도반시축제 10. 7~9 / www.청도반시축제.kr

유등축제에서 소원 빌고, 안동에서 탈춤도 관람하자

경남 진주 남강에 등을 띄우는 '유등축제'는 우리 겨레의 최대 수난기였던 임진왜란 때 벌어진 진주성 전투에서 유래된 행사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등은 과거 군사신호로 혹은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의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모티브로 자리 잡게 됐다. 전북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통 민속예술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창설됐다. 이번 행사에는 각 고장의 향토 예능을 한자리에 모아 기예와 특색을 서로 겨루고 자랑하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있다. 안동에서는 국내외의 탈춤 공연과 세계탈놀이경연대회 등 수준 높은 탈춤 공연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제탈춤페스티벌'이 열린다.

진주남강유등축제 ~10. 16 / www.yudeung.co

한국민속예술축제 10. 13~16 / www.ktaf.or.kr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0. 9 / www.maskdance.com

순천·광주·울산에서 문화예술의 향기를

전남 순천의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는 '세계환경생태아트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 페스티벌은 순천의 자연환경이 갖는 천혜의 문화환경적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 축제의 장을 펼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주제전과 특별전, 도심 미술퍼포먼스, 국제학술심포지엄 등의 행사가 열린다. 2016 광주비엔날레에는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37개국 101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올해는 전시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면서 광주 시내 곳곳이 현대미술의 장으로 연출된다. 울산 한글문화예술제는 한글의 역사성과 전통성, 문학적 가치를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예술제다. 울산 중구 원도심 일원과 외솔기념관을 중심으로 한글과 관련한 다양한 공연, 체험,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세계환경생태아트페스티벌 10. 15~30

광주비엔날레 ~11. 6 / www.gwangjubiennale.org

울산 한글문화예술제 10. 7~9 / www.ulsanhangeul.com

제주에서 한류 콘서트, 부천에서 애니메이션 축제를

제주 K-콘벤션에서는 세계 최대 한류 콘서트인 케이콘(KCON)이 개최된다. 케이콘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풍성한 K-콘텐츠와 한류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K-팝 아티스트, K-콘서트까지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는 매년 10월 초에 제주도 일원에서 '탐라문화제'도 열린다. 이 축제는 제주도민과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문화로 만나 소통하고 향유하는 문화축전으로 각종 전시, 체험, 행사가 진행되며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올해 부천국제애니메이션축제에는 장편, 단편 등 애니메이션영화제, 전시, 부대행사, 학술포럼 등이 열린다.

KCON 2016 JEJU 10. 29~30

탐라문화제 10. 5~9 / www.tamrafestival.kr

부천국제애니메이션축제 10. 21~25 / www.biaf.or.kr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3일 동안 전국에서 18개의 문화 행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한글문화큰잔치 때 공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경복궁 야간 개장, 2016 미술주간, 불꽃축제 쇼핑 외에 문화 공연도 풍성해요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진행되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쇼핑기간인 동시에 한류 문화 체험기간이기도 하다.

우선 가을밤이면 빗장을 여는 경복궁이 올가을에도 야간 특별 관람을 실시한다. 기간은 10월 28일까지다. 관람시간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므로 늦어도 밤 9시에는 입장해야 한다. 한복(전통한복, 생활한복 포함)을 입으면 무료로 경복궁에 입장할 수 있다. 단, 브이(V)넥 티셔츠 형태의 생활한복 저고리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저고리는 여미는 것 형태가 좋다.

이번 야간 특별 관람은 평소보다 조금 특별하다. 문화기술로 경복궁의 600년 역사가 되살아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창조아카데미, 문화창조벤처단지와 협업을 통해 경복궁 내 경회루, 금천교, 영제교에 미디어 파사드와 공연을 결들인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경회루에서 펼쳐지는 비주얼 퍼포먼스, 국악, 전통무용은 융·

복합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공연으로,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세상을 표현한다.

공연예술도 무대에 오른다. 10월 30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다. 올해 16회를 맞은 SPAF는 국내외 연극과 무용 작품을 소개하는데 올해는 해외 초청작 5작품, 국내 선정작 10작품, 창작산실 지원사업 1작품, 한·영 합작 프로젝트 1작품 등 총 6개국 17작품이 40회에 걸쳐 공연된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예술가와의 대화'도 마련된다.

축제의 서막도 화려하게 오른다. 1년에 단 한 번, 아름다운 불꽃이 가을 저녁 하늘을 수놓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10월 8일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이다. 개막식이 시작되는 오후 7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불꽃축제가 시작되고, 오후 8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각종 공연이 펼쳐진다. 10월의 강바람은 생각보다 차갑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불꽃축제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은 긴소매 옷과 무릎 담요를 챙기자. 특히 사람이 많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열리는 공연과 전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무용 | 한·영 합작 프로젝트 '로잘린드(Rosalind)'

셰익스피어의 원작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에서 로잘린드는 숙부의 음모로 몰락한 공작의 딸이다. 숲으로 도망친 로잘린드는 올랜도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한·영 합작 프로젝트로, 영국의 떠오르는 신예 안무가 제임스 커즌스는 로잘린드를 좋아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과 사회적 고정관념에 주목했고,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를 2016년 서울로 가져와 로잘린드의 자기 발견과 해방의 여정을 정제되고 강렬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안무	제임스 커즌스
단체	제임스 커즌스 컴퍼니
러닝타임	60분
티켓	전석 3만 원
일정	10월 20일 오후 8시, 10월 21일 오후 8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연극 | 여보세요 (Excuse Me)

소설가 김애란의 단편소설 '노크하지 않는 집' 원작에 한국의 전통 서사극인 '판소리' 양식을 담아낸 작품이다. 7자 하숙집에 거주하는 5명의 여자들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얼굴도 모르는 '옆 방 여자들'에게 경계심을 가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 줄거리다. 이 작품은 여자 5명이 모여 사는 하숙집을 배경으로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20, 30대 여성들이 겪는 두려움과 미지의 시간을 표현한다.

작·연출	이자람
단체	판소리만들가·자
티켓	전석 3만 원
러닝타임	75분
일정	10월 20~21일 오후 8시, 10월 22일 오후 5시
장소	아크예술극장 소극장

미술주간



국립현대미술관 '김수자 - 마음의 기하학'

우리나라 대표 현대미술 작가인 김수자의 개인전 '마음의 기하학'을 비롯해 사운드, 영상, 퍼포먼스, 조각 등 9점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내년 2월 5일까지 전시된다. '마음의 기하학'은 전시 중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작품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소재가 다른 점토들이 놓여 있는데, 관람객은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원하는 만큼 덜어간다. 19m의 타원형 나무 탁자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점토를 둥글게 빚는다. 이 행위에는 점토를 둥글게 빚는 과정이 마음의 모서리를 깎는 행위와 같다는 의미가 담겼다.

기간	2017년 2월 5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티켓	무료



경주술거미술관 '소산 박대성 화업 50년 기념전'

한국화의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백과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큰 뿌리인 경주 미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기념전에는 소산 화백의 근작을 중심으로 82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대작 '술거의 노래'는 신라 최고의 화가인 술거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고, '제주굴'은 제주 지역 한 마을의 600년 된 당산나무에서 영감을 얻었다. '금강설경'은 소산 화백이 15차례나 금강산을 가보고 그린 겨울의 금강이다.

기간	11월 23일까지
장소	경북 경주술거미술관 1전시실

아 잔디 관람석이 아닌 곳에 앉는 경우가 있으므로 폭신한 돗자리를 가져가면 유용하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해 환상적인 볼썽이 하늘을 수놓는 순간을 사진 찍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배터리를 챙기는 것이 좋다.

한글문화큰잔치서 뮤지컬·아동극·미술 무료 관람

미술주간 기간에는 관람료 무료 혹은 50% 할인

한글날을 기념하는 한글문화큰잔치는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의 날로 진행된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각종 행사가 펼쳐지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총 4개의 마당이 열리는데, 그중 공연마당 일정을 꼼꼼히 챙기면 좋은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가족 뮤지컬, 관현악 연주 공연, 국악 뮤지컬, 아동극, 뮤지컬 공연 댄스,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대중과 미술의 접점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미술주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열린다. 행사기간은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다. 올해 미술주간은 미술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안을 뒀다. 그래서 슬로건도 누리소통망(SNS)인 페이스북을 차용한 '좋아요! 미술(Like! Art)'이다. 그런 만큼 관객 친화형 서비스를 마련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미술주간 개막에 맞춰 스토리텔링을 기초로 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전국의 미술관 중 '사진 찍기 좋은 미술관', '무료 관람 혹은 할인 혜택 미술관' 등을 소개한다.

미술주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마미술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전시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16광주비엔날레기념 한국·대만 현대미술전'을 개최하고, 경주술거미술관은 '소산 박대성 화업 50년'을 전시한다. '올해의 미술도시'로 선정된 대구는 대구문화재단 주관으로 예술가 작업실 탐방 등을 진행한다. **G**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어떻게 즐길까

역대 최대 규모… 알뜰 쇼핑 곳 찬스!

© 동아DB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가 펼쳐진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쇼핑관광축제가 시작됐다.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10월 9일까지)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특히 지난해 열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보다 참가하는 업체와 할인 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번 할인행사에는 총 215개 업체(9월 27일 기준)가 참여한다. 올해는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면세점 등 유통업체뿐 아니라 지난해 참여하지 않았던 가전, 자동차, 패션, 화장품 등 주요 제조업체가 대거 참여해 소비자가 선호할 만한 품목을 대폭 구비하고 있다. 주요 품목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TV·냉장고·세탁기·청소기 등 가전품목 20~30%

의류·신발·핸드백·지갑 등 50~80% 할인

‘가전’ 부분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주요 품목이 20~30%,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68%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대형TV와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고급 무선청소기 등 프리미엄 제품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는 특정 모델과 한정 수량에 한해 5~10% 할인되며, ‘의류와 패션’은 의류, 신발, 핸드백, 지갑 등 브랜드별로 다양한 품목에 대해 50~80% 할인된다. 특히 노세일 브

랜드와 가을 신상품 일부 제품도 할인(10% 안팎)된다.

‘화장품’은 로드숍 브랜드는 20~50% 할인되고, 프리미엄 브랜드는 중량 스페셜 세트를 기획 출시하며, ‘생활용품’은 주방용품, 식기, 홈데코, 가구, 완구, 유모차 등 브랜드별로 다양한 품목이 25~65% 할인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가전 전문점, 자동차, 화장품, 외식 등의 주요 유통업체들도 할인품목을 크게 늘렸다. 롯데백화점은 노스페이스 경량 재킷, 메트로시티 핸드백, 탠디 구두 등 50여 개 브랜드 상품을 50% 이상 할인하고, 닥스와 루이까포즈 핸드백 50%,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3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그룬딕 인덕션 3구 전기레인지를 68% 할인하고, 소다 일부 품목 50%와 탠디 일부 품목 60%, 아이더 일부 품목 41%, K2 일부 품목 53%, 미키하우스 일부 품목 50%, 무나무나 일부 품목을 59% 할인한다.

신세계백화점은 패션, 잡화, 생활 등 300여 개 브랜드를 특가 상품으로 선정해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월 상품은 최대 80%, 겨울 패딩은 20~30%, 50여 개 패션 노세일 브랜드에 대해 특가 상품 기획전을 실시한다.

이마트는 식품, 대형가전, 침구, 주방용품, 패션, 아웃도어 등을 최대 50% 할인하고, 롯데마트는 토이저러스 완구 대전을 포함해 창

고 대방출 품목에 한해 최대 70%, 분유와 기저귀 등 생필품에 대해 특별 기획 할인을 실시한다.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는 814ℓ 푸드 쇼케이스 냉장고를 최대 20%, 파워봇 로봇청소기를 최대 30% 할인하고, LG전자 베스트샵에서는 65인치 OLED TV를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며, 트윈워시 세탁기를 최대 20%, 얼음정수기 냉장고는 최대 25% 할인한다.

하이마트에서는 LG UHD TV 30%, 삼성 세탁기 30%, 삼성 김치냉장고 14%, 대우 양문형 냉장고를 27% 할인하고, 전자랜드에서는 10인용 쿠쿠 밥솥을 최대 47%, 안마의자 최대 50%, LED TV는 최대 32%까지 할인한다.

온라인 쇼핑물 업체도 대거 참여

10월 4~7일까지 요일별로 특가 할인전도

현대자동차는 그랜저와 산타페 등 차종별로 5~10%(5000대 한정), 아모레는 설화수 자음생 크림 스페셜 세트, 헤라 셀 에센스, 프리메라 워터린을 증량해서 판매하고, 아리따움과 에뛰드도 최대 50% 할인 또는 1+1 행사를 하며, 이니스프리와 에스쁘아는 일부 품목에 한해 20% 할인에 들어간다. LG생활건강 터페이스샵은 전 품목을 20~50% 할인한다.

외식업체들도 할인행사에 참가했다. 빙스는 결제금액의 20%, 계절밥상은 결제금액의 10%를 할인하고, N서울타워는 개별 입장권 20% 할인과 패키지 입장권 10%를 할인한다.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온라인 쇼핑물 업체도 대거 참여했다. 특히 패션, 디지털, 가전, 뷰티, 리빙 등의 품목군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요일별로 특가 할인전(사이버 핫 데이스)을 실시한다.

10월 4일 '패션데이'에는 11번가 등 25개 업체가 운동화, 주얼리, 아웃도어 등의 품목을 20~70% 할인하고, 10월 5일 '디지털데이'에는 G마켓 등 18개 업체가 디지털TV, 일반 가전 등의 품목에 대해 40~70%를 할인한다. 10월 6일 '뷰티데이'에는 롯데닷컴 등 23개 업체가 고급 및 일반 화장품, 향수 등을 20~50% 할인한다. 10월 7일 '리빙데이'에는 NS홈쇼핑 등 23개 업체가 유아용품(기저귀, 분유), 특산물(제철식품) 등의 품목에 대해 10~40%를 할인한다.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전통시장과 거리 상권 등 중소상인의 참여도 확대됐다. 특히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갑절이 늘어난 40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광주, 고양 3개 지역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할인전을 개최(총 450여 개 부스)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간 직거래 장터도 마련했다.

정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살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G**

전국 17개 대표 전통시장 할인행사 안내

전국 17개 대표 전통시장에서 할인행사와 문화관광 공연 연계한 행사 풍성

전국 시·도별 17개 대표 전통 시장은 다양한 할인행사와 관광·문화공연 등을 연계한 행사도 진행한다. 전남 강진읍 시장은 낙지와 어패류를 특가 판매하고 음악캠핑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광주 대인



© 동아DB

시장은 총장 축제와 연계한 세일을 진행한다. 서울 남대문시장은 글로벌 팩토리데이, 한류 체험, 외국인 환대 프로모션, 대구 서문시장은 야시장과 야간 패키지 투어 등 밤에 즐기는 전통시장 프로그램, 대전 중앙시장은 재고장터와 한복 플리마켓을 진행한다. 충남 보령중앙시장은 보부상 체험 등 '보부상'을 테마로 다양한 이벤트, 세종시 세종전통시장은 다문화(6개국) 음식 페스티벌, 경기 수원남문시장은 푸드트럭과 함께하는 야시장, 경북 안동구시장은 '안동찜닭과 생맥주'의 결합 프로그램, 경남 양산 남부시장은 시장연극제(퓨전마당극)와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울산동구시장연합회는 참여시장 대표 상품 할인(과일·정육 등), 인천 신기시장은 자개·한지·전통공예 체험행사, 부산 자갈치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요리 경연대회, 전북 전주 남부시장은 한옥마을과 무료 관광열차 등 관광 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 강원 정선아리랑시장은 정선아리랑제와 억새꽃 축제 등 지역 축제 연계 상품, 제주 동문시장은 오메기떡·굴하르방빵·빙떡 등 푸드 페스티벌,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은 인심가득 야시장과 인심 덩 저울 등 '인심'을 테마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영홈쇼핑 개국 1년 만에 6147억 매출 달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제품 발굴로 소비자·스타트업이 상생합니다~

공영홈쇼핑



1 공영홈쇼핑은 창의 혁신 상품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창의혁신 상품을 소개하는 창의혁신스튜디오 모습. 2 3 공영홈쇼핑의 히트 상품인 손과발의 '원스텝 젤네일 세트'와 '조금자 채소혼합곡'.

박섫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지난해 7월 개국한 뒤 1년 만에 614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새로운 유통채널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기존 홈쇼핑의 고질적 문제인 높은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업계 최저 판매 수수료율(23%)을 적용하고 오직 국내 중소·벤처기업 제품만으로 얻은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제품, 벤처기업 신제품, 6차산업화 농식품 등 220개 창의혁신제품을 발굴해 660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매출 10억 원 이상의 우수상품 169개를 발굴해 국내외 유통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송도 이미 3000회를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TV 홈쇼핑에 입점하려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야 하고 시장에서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 초기기업의 입점이 쉽지 않다고 평가해왔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저력 있는 신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는 셈이다.

220개 창의혁신 상품 발굴 660억 원 판매고

10월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소개 프로도 편성

특히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상품 가운데 초기 농산물의 판매 실적이 우수하다.

맑은샘자연교육농원의 '조금자 채소혼합곡'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영홈쇼핑을 통해 약 20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

다. 황룡농협이 '삼무루지새싹삼'과 마이산현미발효밥의 '속이 편한 발효현미'도 각각 10억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조금자 채소혼합곡은 전라북도 농가공식품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제품으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영홈쇼핑을 만나 매출이 크게 늘었다.

공산품 부문에서는 손과발의 '원스텝 젤네일 세트'가 3회 방송(생방송 기준)에 3억 원 가까운 실적을 나타내는 등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올해 8월 공영홈쇼핑에 입점한 손과발 상품은 화장품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해 젤네일 바르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손과발 강선혜 실장은 "한 회 방송 판매량이 월매출(약 80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며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로를 찾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영홈쇼핑은 최근 창의혁신 상품 발굴을 더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상생협력팀을 창조경제상생협력단으로 확대해 발족했다. 판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입점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단장은 이영필 공영홈쇼핑 대표가 맡는다. 창조경제상생협력단은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점업체 상품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상품, 정부·출연기관 지원 상품, 벤처·스타트업 상품 등 창의혁신 상품을 찾아 나간다. 협력사의 재고 부담이 없는 직매입 유통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설치했다. 직매입은 공영홈쇼핑이 방송에 앞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재고까지 책임지는 유통방식이다. 현재 공영홈쇼핑은 효율적인 직매입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 군포시에 약 5000m² 규모

| 인터뷰 | 공영홈쇼핑 **이영필** 대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상생협력 문화 만드는 매개체 되겠습니다”



이영필 공영홈쇼핑 대표(창조경제상생협력단장, 왼쪽에서 네 번째)와 단원들이 협력단 출범을 맞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공영홈쇼핑이 거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영홈쇼핑은 기존의 다른 홈쇼핑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평균 1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채널 번호도 지상파 사이의 골드채널이 아닌 20번대(일부 3, 4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입상품은 일절 판매하지 않죠. 하지만 중소기업의 강인한 정신과 실력을 보란 듯이 성과로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줄지어 공영홈쇼핑을 찾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영홈쇼핑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죠. 창의혁신 상품, 스타트업 상품, 6차산업 상품, 전통식품 등이 홈쇼핑에서 통할 수 있을까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이를 극복해 노력하는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농어민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창조경제상생협력단의 발족 취지는요

“창조경제상생협력단은 지난해부터 공영홈쇼핑이 운영해온 상생협력팀을 승격·확대한 형태입니다. 창조경제의 성과물을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공영홈쇼핑이 지향하는 ‘창조경제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발족했습니다. 창조경제상생협력단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자치단

체, 중소기업·농어업 관련 기관 등과 손잡고 우리 우수 중소·벤처기업 상품, 농축수산물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의 기술·아이디어, 농어민의 땀방울이 묻어난 제품이 순조롭게 입점해 소개될 수 있는 장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죠.”

대표께서 직접 단장도 맡았는데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싹을 틔운 창조기업들의 결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혁신센터를 둘러보면서 아이디어가 뛰어난 제품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상의 좋은 지원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범 2년 만에 나오고 있는 유의미한 성과물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대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제품 발굴부터 방송 판매, 홍보까지 제대로 챙기고 싶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기술 그리고 우리 농어민의 장인정신이 담긴 상품을 최대한 많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생소하지만 가치와 잠재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협력단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상품 선정에 나설 것입니다.”

창조경제상생협력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명칭처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창의혁신 상품, 벤처기업·스타트업·6차산업 상품, 전통식품 등을 찾아내고 이들 협력사가 ‘우리도 TV 홈쇼핑에 출연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TV는 ‘시연성’이 있어 생소한 물품의 진가를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별 전담 상품개발자가 지정돼 지방자치단체,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기관 등이 지원·관리하는 상품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공영홈쇼핑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을 적극 알리기

위해 10월 중 고정 프로그램인 ‘TV 창조경제혁신센터(가칭)’를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매회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한 곳의 상품을 집중 소개하는 방식으로, 방송시간 동안 2~3개 상품을 판매하고 주요 입점 상품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방영할 계획이다. **G**

전국 76곳 1만6844가구 입지 확정

‘행복주택’ 전국 14만 가구로 확대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전국 76곳이 1만6844가구의 행복주택이 건설될 입지로 새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진행한 ‘행복주택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8388가구가 들어설 39곳을 선정하고, 공모와 별도로 행복주택 7548가구가 공급될 15곳과 마을정비형 행복주택 908가구가 들어설 22곳을 확정했다고 9월 2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월 12만3000가구였던 행복주택은 약 14만 가구(301곳)로 확대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난 7월 지자체 공모 당시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15개 시·도가 총 100곳 2만5000가구를 제안했고, 국토부가 해당 후보지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개발가능성 등을 평가해 39곳 8388가구를 우선 확정했다. 선정된 사업지 중 34곳은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은 성남 판교(300가구), 수원 광교(300가구), 부천 상동지구(750가구) 등 경기도가 23곳 5104가구로 가장 많았고 제주(812가구), 충북(662가구), 부산(510가구), 전남(450가구) 등이 뒤따랐다.

공모에 뽑힌 주요 지역 가운데 성남 판교지구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밀집한 판교신도시 내 경기도 도유지로 행복주택 300가구가 건설된다. 수원 광교2지구는 인근에 다수의 대학과 업무시설이 소재해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 남구 대연지구는 경성대와 부경대 등이 있는 대연동 대학가로, 이곳에 새롭게 건설된 행복주택은 저층은 주차장과 상가, 고층은 행복주택인 형태로 지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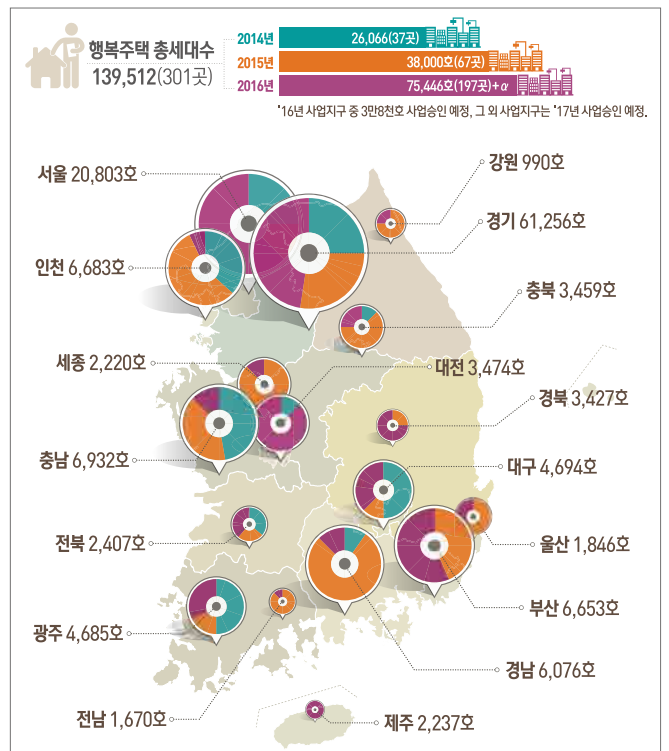
‘신혼부부 특화단지’ 5곳 추가 선정

투룸형 공급…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소아과 등 마련

지자체 공모와 별도로 국토부가 선정한 15곳은 경기 6곳과 경남 2곳, 부산·경북·강원·인천·대구·세종·광주 1곳씩이다. 인천국제공항 등이 입지한 영종하늘도시에 들어서는 인천 영종2(450가구), 창원 용원(400가구) 등이 새 행복주택 입지로 결정됐다.

이로써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확정

행복주택 추진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된 행복주택 입지는 전국 301곳 13만9512가구 규모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 가구의 사업 승인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5개소를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추가 선정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도록 투룸형으로 공급되고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키즈카페, 소아과 등 육아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 수서역세권(800가구)과 경기 고양 장항(2000가구) 등 5곳(5450가구)이며, 이로써 전국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총 10곳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이르는 등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수요맞춤형 행복주택을 더욱 확산시켜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

전세임대 임대료 최대 33% 낮아진다 10월부터 3만8000여 가구 혜택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최대 33% 인하한다.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올 10월부터 전세임대주택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가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9월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월 28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 대출액에 따른 연이율을 살펴보면, 2000만

전세임대 대출액별 이자율 비교

구분	~2000만	2000만 ~3000만	3000만 ~4000만	4000만 ~5000만	5000만~
현행	1%	1.5%	1.5%	2%	2%
변경	1%	1%	1.5%	1.5%	2%

단위 : 원 / 자료 : 국토교통부

원까지는 연 1%, 4000만 원 이하는 연 1.5%, 4000만 원 초과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3000만 원까지 연 1%, 5000만 원까지 연 1.5%를 각각 적용하게 된다.

보증금 3000만 원까지 연 1% 대출 이율 적용

10월 1일 이후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묵시적 계약 연장자 등 포함

예를 들어 A 씨가 3000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5%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연간 45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연간 30만 원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한 해 내는 임대료가 4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약 33% 줄어든다.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B 씨도 임대료로 연간 100만 원을 냈지만, 10월부터는 연이율이 1.5%로 낮아져 75만 원만 내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25만 원을 아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대상으로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년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8만4000가구를 공급했고, 약 14만3000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한다. 국토부는 올해 4만1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중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만4300여 가구에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6]

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원스톱 서비스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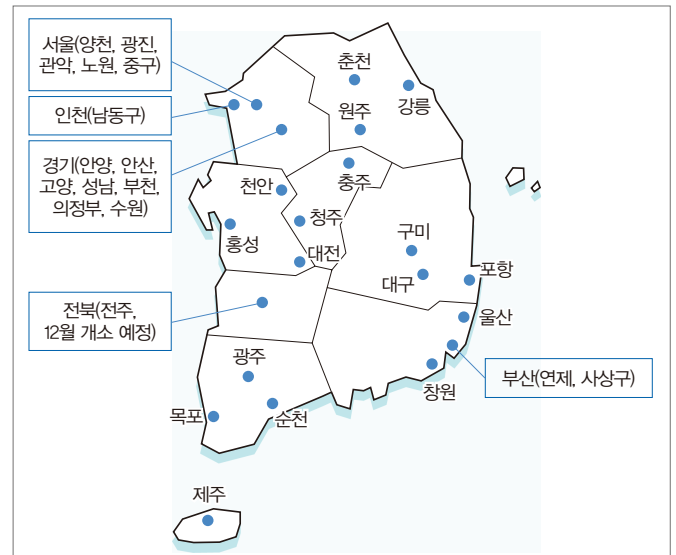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맞춤형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빌딩에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그동안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 등 각 기관에서 담당했던 서민금융 업무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왔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면서 “3년 반 동안 16조 원의 서민자금을 공급해 80만 명의 채무를 재설계해주는 등 서민금융 지원에 힘을 쏟아왔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빈틈을 메우는 중금리 사이트 대출 출시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34.9→27.9%)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늘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통합 지원 인프라까지 갖추게 됐다”면서 “이제 중요한 과제는 서민금융 지원의 3개 핵심 영역인 지원 대상 선정, 상품 개발, 전달체계를 혁신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서민들의 금융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우선, 그동안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별로 단편적인 상품을 안내해왔던 서비스를 서민금융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합지원센터(2016년 안에 33개 구축)를 통해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한 번에 제공해 서민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지자체·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금융 지원과 취업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 등의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통합콜센터(1397)를 운영하거나, 전통시장이나 임대아파트 등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원자 선정·상품 개발·전달체계 혁신

서민금융 종합 DB 구축도 추진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민금융’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상품은 다양했으나 지원 대상이 중복되고 한정적이었다. 앞으로는 이용자별 이력 관리, 수요 분석을 통해 기본상품 간의 비교 평가,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특히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G**

보험계약 체결·청구 등 단계별 설명 의무 확대

1일

-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심사·지급 단계별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사항 확대(보험업법 시행령)
- 보험계약은 약관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험회사 측의 설명이 중요한데,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심사·지급의 각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을 확대했다.

- 형사사건 피해자나 증인의 보복범죄 노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설(형사소송법)

-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 시 피해자,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28일

- 기상 악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건설공사 수급인이 요청하면 도급인은 반드시 공사기간 연장해야(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공사를 맡은 도급인의 책임이나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를 맡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의무화했다.

10월 주요 시행 법령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국군의 날 「보험업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 노인의 날	3 개천절	4	5 세계 한인의 날	6	7	8 한로 재향 군인의 날
9 한글날	10 임산부의 날	11	12	13	14	15 문화의 날 체육의 날
16	17	18	19	20	21	22
23 상강 30	24 국제연합일 31	25 저축의 날	26	27	28 교정의 날 「산업안전보건법」	29 지방자치의 날

자료 : 법제처



5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국민 모두의 하나 된 열정으로 경제·평화·환경·문화 올림픽 만든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한국에서 열리는 첫 동계올림픽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 9~25일)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경제·평화·환경·문화 올림픽이라는 4대 주제를 앞세워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27일 G-500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그 열기는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나 된 열정'이라는 대회 슬로건처럼, 리우올림픽에 이어 또 한 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국민의 열정이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박해운 기자

● “스키를 탄 채로 총을 들고 화면에 사격을 하시면 됩니다.”(바이애슬론 체험)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다비와 수호랑 탁본을 뜨고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지난 9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 공식 스폰서와 파트너 기업들의 홍보 체험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설상 종목인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사물인터넷(IoT)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가 하면, 다트를 던져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응원의 메시지를 선택하고 경품을 받아가는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세계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동계올림픽의 사상 첫 한국 개최가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한강시민공원에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G-500, 이제는 평창이다' 행사가 열렸다. 2018년 2월 9일 개막까지 500일을 앞둔 가운데 열린 이벤트다.

행사에는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황영철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피겨 여왕' 김연아와 유명 사진작가 조세현 등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들도 자리를 빛냈다. 이 밖에도 올해 리우올림픽에서 활약한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오혜리와 유도 남녀 메달리스트 안바울, 정보경도 함께했다.

박 대통령 “우리 문화와 국민적 저력 보여줄 기회”

100여 개국 참가, 금메달 102개 ‘역대 최대 규모’

박근혜 대통령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평창올림픽은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와 국민적 저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평창올림픽이 지구촌 인류에게 감동과 화합의 축제가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열정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전했다.



- 1 박근혜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열정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2 서울 광화문 KT 사옥 벽면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념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되고 있다.

평창올림픽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 꼭 30년째 되는 해다. 또한 대한민국이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태극기를 앞세워 처음 출전한 지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

2003년 첫 도전 실패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평창 유치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경제·평화·환경·문화 올림픽이라는 4대 주제를 앞세워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 한국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여섯 번째 나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선 두 번째 동계올림픽 개최국이 된다.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을 슬로건으로 앞세운 평창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00여 개국 6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참가국과 선수단 규모는 지난해 7월 조사한 것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역대 올림픽 최대 참가국 수는 2014년 소치 올림픽의 88개국 3000여 명이다. 선수단과 국제올림픽위원회 패밀러, 국제 스포츠 관계자, 보도진 등 대회와 직접 관련된 방문객만 5만 명이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선 올림픽들의 기록을 대거 갈아치울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종목은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등 기존 15개 종목에 스노보드 빅에어(남·여), 매스스타트(남·여), 혼성컬링, 알파인스키 팀 이벤트 등 6개 종목이 새로 추가되는 등 역대 대회에서 가장 많은 여성·혼성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금메달 수도 사상 처음으로 100개를 넘긴 102개로 확정됐다.

6개 신설 경기장 평균 공정률 88%

올림픽 경제 효과 64조9000억 원 기대

올림픽 경기장 등 시설 준비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설상 경기장 7개와 빙상 경기장 5개 등 모두 12개 시설이 필요하다. 이 중 정선 중봉 알파인 경기장과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강릉 아이스아레나·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6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요

대회 기간 2018. 2. 9~25(17일간)

참가국 100여 개국

선수단 6300여 명

경기 종목

- 설상 7종목(금메달 수 61개)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 스노보드
- 빙상 5종목(32개)
컬링,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 슬라이딩 3종목(9개)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경기장 수 12개(신설 경기장 6개)

개 경기장은 새로 짓는다. 신설 경기장은 2014년 착공해 현재 평균 공정률이 88%를 넘어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평창올림픽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3조8000억 원에 이른다. 도로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이 포함되면서 4조8000억 원가량이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평창올림픽 경제 효과는 64조9000억 원에 달한다. 경기장과 교통망, 숙박시설 등 올림픽 관련 투자와 소비 지출에 따른 직접 효과가 21조1000억 원, 겨울 관광지 부상 등 간접 효과는 43조8000억 원이다.

한국은 평창올림픽에서 메달 20개, 종합순위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은 금메달과 은메달 각 6개, 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한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올림픽 500일 전인 지난 9월 27일부터 폐막식이 열리는 2018년 2월 25일까지 전국 각지와 세계 주요 도시, 온라인을 무대로 ‘평창문화올림픽’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문화올림픽의 출발을 알려주는 것은 올림픽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365일 전, 100일 전 등 주요 시점마다 카운트다운 문화 행사의 장소와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며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할 계획이다. G

평창동계올림픽 주인공은 바로 나

올림픽 3연패 노리는 빙상 여제 이상화, 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 스켈레톤 윤성빈도 주목



1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올림픽, 2014년 소치올림픽에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3연패를 노린다. 2 김연아의 뒤를 이어 피겨스케이팅 유망주로 떠오른 차준환.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을 뜨겁게 달굴 기대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먼저 ‘빙상 여제’ 이상화(27·스포츠토토)가 2010년 밴쿠버올림픽, 2014년 소치올림픽에 이어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3연패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 무릎 부상이라는 악재에도 세계랭킹 4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상화는 지난 여름 캐나다 전지훈련을 통해 자신을 담금질했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무릎 재활훈련을 하면서 체중을 줄이고 대신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계속해왔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비롯해 사이클, 산행 등의 훈련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상화는 올 초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74초 859를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2년과 2013년 이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했지만 이후 무릎 통증과 컨디션 악화로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3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이상화는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떨리고 힘들고 외로웠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드디어 이겨냈다’는 글을 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소치올림픽 이후 훈련 부족과 컨디션 난조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속상했어요. 메달을 되찾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고 그 결과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 목표는 5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마음가짐도 남다르다.

무릎 부상 이겨낸 이상화, 캐나다 전지훈련으로 담금질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부담감 떨칠 것… 목표는 나 자신”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행사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이에요. 더구나 운동선수라면 누구라도 목표로 하는 큰 무대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올 테고, 동기 부여도 그 어느 때보다 크고요. 저 또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서 무엇보다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빛내는 것이 큰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훈련에 더욱 매진하려 합니다.”

꾸준한 연습, 오랜 경험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상화는 또 한 번 세계 제패에 나선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그녀가 세운 자신만의 목표는 무엇일까.

“목표는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스피드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평창올림픽에서도 금메달리스트로서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출전을 꿈꾸던 어린 시절의 이상화로 돌아가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좋은 성적은 자연스럽게 뒤



1 평창올림픽에서 봅슬레이
종목 첫 금메달을 노리는 현재
세계랭킹 1위 원윤종·서영우.
2 소치올림픽에서 금부상한
쇼트트랙 심석희도 또다시 금
메달에 도전한다.

따라올 테니까요.”

전통적인 ‘메달밭’ 쇼트트랙에서는 여자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된다. 소치올림픽 당시 ‘차세대 에이스’로 급부상한 심석희(19·한국체대)와 그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최민정(18·서현고)이 ‘쌍두마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 무대를 처음 밟은 최민정은 지난해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물오른 기량을 자랑하고 있다.

소치올림픽에서 금 1개(3000m 계주), 은 1개(여자 1500m), 동 1개(여자 1000m)를 따낸 심석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다소 주춤했지만, 2015~2016시즌 월드컵대회에서 개인종목 금메달 4개를 따내며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 심석희·최민정 쌍끌이

세계랭킹 1위 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 첫 올림픽 금메달 노려

썰매 종목에서는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썰매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가능성을 불려온 봅슬레이 국가대표 원윤종(31·강원도청)과 서영우(26·경기도BS경기연맹)가 그 주인공이다.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18위로 오른 데 이어 지난 3월 독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위를 기록했고, 2015~2016시즌 마지막 월드컵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랭킹 1위로 마무리했다.

“목표는 물론 금메달이에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을 것 같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손에 닿을 듯한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뜨거운 열기와 성원 속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습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에 이상화가 있다면,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에는 ‘장거리 간판’ 이승훈(28·대한항공)이 있다. 2009년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한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남자 5000m 은메달, 1만m 금메달을 차지하며 이 부문 최강자가 됐다. 4년 전 소치에서는 아쉬운 ‘노메달’에 그쳤지만 평창 무대에서 명예 회복에 나선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뒤를 이을 재목을 찾고 있는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차준환(15·휘문중)이 눈에 띈다. 차준환은 김연아의 전성기를 함께 보낸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지도 속에 4회전 점프를 실전에서 깔끔하게 펼 수 있을 정도로 기량이 급성장했다. 지난 9월 자신의 첫 주니어 그랑프리 무대인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소치올림픽에서 한국 스킨레이팅 사상 최고 성적인 16위에 오른 윤성빈(22·한국체대)도 봅슬레이와 함께 슬라이딩 종목 기대주로 꼽힌다. 윤성빈은 올해 2월 2015~20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스킨레이팅 월드컵 7차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수확했다. 윤성빈의 지난 시즌 세계랭킹은 2위였다.

설상 종목에서는 알파인스키의 간판 정동현(28·하이원)이 대표적이다. 소치올림픽에서는 41위에 그쳤지만, 지난 2015~2016 국제스키연맹(FIS) 극동컵 정상에 오르며 올림픽의 기대감을 높였다. 스노보드에서는 이광기(22·단국대)와 정유림(17·수리고)이 주목받고 있다. 스노보드 종목은 크게 알파인과 크로스, 슬로프스타일, 하프파이프 등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하프파이프에 출전한다. 하프파이프는 반원통형 슬로프(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모양)를 내려오면서 점프와 회전 등 공중 연기를 선보이는 종목이다. 2년 전 소치올림픽에 출전했지만 결선 진출에 실패한 이광기는 지난해 세계선수권 8위, 올해 월드컵 6위 등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G

미리 떠나는 올림픽 여행

평창·정선·강릉 명소도 보고 건설 중인 경기장도 보고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평창

오대산 월정사 절로 가는 길 중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은 천년 숲길로도 불린다. 일주문에서 대웅전이 있는 곳까지 1km 남짓 되는 전나무 숲길을 지나면 도착하는 월정사는 앞마당에 위치한 팔각9층석탑(국보 48호)으로도 유명하다. 많은 사찰과 암자가 산재해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 성지로도 꼽힌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2

대관령 양떼목장 대관령 양떼목장은 대관령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태백산맥의 웅장한 자태와 목장 산책로의 아기자기한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부드러운 능선과 야생 식물로 가득 찬 습지대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2012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는 오는 10월 완성된다. 루지와 봅슬레이, 스킨슬레TON 경기가 열리는 국내 최초의 동계 슬라이딩 경기장으로 총길이 2018m, 트랙 길이 1857m로 커브가 16개, 관중석 규모가 7000석에 이른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

아라리촌 '정선아리랑'이 품고 있는 생활상을 담기 위해 조성된 아라리촌은 우리나라 전통가옥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굴피집, 너와집, 저름집 등 강원도의 산골 주거문화를 한데 모아서 복원 전시했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양반전>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생동감 넘치는 동상들도 눈에 띈다. 강원 정선군 정선을 애산로 37

화암동굴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꾸며놓은 국내 유일의 테마형 동굴. 일제강점기에 금을 캐던 천포광산으로 금맥 따라 개발 중 발견된 천연 종유동굴이다. 규모 2.8km, 관람 길이 약 1.8km 구간으로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8



알파인 경기장 정선 가리왕산에 조성되는 알파인 경기장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알파인 경기장 일대에 지정된 정선 생태체험지구 올림픽특구 개발사업도 본격화돼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강원 정선군 북평면

강릉

선교장 3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이다. 효령대군의 11대손 이내번이 지어 살던 곳으로 개인 소유의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5호)로서 그 명성을 잇고 있다. 건물 10여 동에 총 130여 칸으로 구성돼 있으며 계절별로 색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30분 거리에 정동진, 레일바이크, 하슬라아트월드 등이 있다. 강원 강릉시 운정길 63



아이스 아레나 2012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는 오는 10월 완성된다. 루지와 봅슬레이, 스킨슬레TON 경기가 열리는 국내 최초의 동계 슬라이딩 경기장으로 총길이 2018m, 트랙 길이 1857m로 커브가 16개, 관중석 규모가 7000석에 이른다. 강원 강릉시 교동 산 51번지

| 인터뷰 |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국가브랜드 가치 높이고 재도약 모멘텀 될 것”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2016 리우올림픽이 폐막된 이후 세계인의 눈은 이제 평창으로 쏠리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이희범(67) 조직위원장에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점들과 성공을 위한 비책 등에 관해 들어봤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한 세대(30년)가 지나는 동안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국민의식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다른 도약의 모멘텀(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준비 상황은

“하드웨어(경기장 등 대회 관련 시설, 숙박, 수송, 교통 등)와 소프트웨어(대회 운영 능력 제고를 위한 부분)적 측면 모두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12개 경기장 중 6개 신설 경기장의 건설 공사는 연말이면 부분 마무리됩니다. 2만2400명을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는 7만여 명 가까이 지원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10월 21일 시작됩니다.”

리우올림픽의 경우 저예산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다는 평가가 많습니.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왔는데, 어떤 점들을 배우셨나요

“리우올림픽은 브라질의 경제 위기 등 여러 가지 재정상의 이유로 당초 계획 대비 50% 이상 삭감된 예산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저비용으로 ‘환경’과 ‘세계 평화’ 등 메시지를 잘 전달해 감동을 줬고, 특히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개·폐회식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대회 운영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원봉사와 언어,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평창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올림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세우셨나요

“일차적으로 조직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각적인 재정 절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 후원금 목표 초과 달성은 물론 공공기관 역시 올림픽 휘장, 마스코트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TOP(The Olympic Partners,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 수입 확대와 라이선싱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가 지난 7월 발표된 이후 리우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에게 해당 마스코트를 소개했고, 홍보관 운영을 통해 ‘이제는 평창!’이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국내 붐 조성을 위해서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와 주요 공공장소에서 다채로운 마스코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평창올림픽 체험공간 역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경기장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12개 경기장 중 10개는 민간기업과 학교 등에 위탁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주인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평창올림픽 이후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한·중·일 3국에서 2년 단위로 올림픽이 열리는데, 베이징올림픽의 경우 우리의 경기장들을 훈련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에 시차 적응과 훈련을 위해 평창의 경기장을 활용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6**

인터뷰 | 대학 캠퍼스 등에서 6개 푸드트럭 운영하는 **함현근** 씨

“푸드트럭에 패기와 문화 신고 달립니다”

©함현근



대학 캠퍼스 등지에서 6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함현근(왼쪽) 씨는 푸드트럭을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문화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푸른 잔디 위에 웅기종기 앉은 청춘들, 청량한 음료 한 잔에 곁들이는 통기타의 선율, 때마침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설익은 웃음소리. 대학교 캠퍼스 안이라면 어디서든 쉬이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리 잡은 트럭 한 대의 모습이 낯설다. 바퀴가 달린 걸 보면 분명 자동차가 맞는데 매끈한 은빛으로 치장한 몸체가 자못 세련됐다. 문을 내어 하늘로 들어 올린 허리춤에선 고소한 기름 냄새까지 풍긴다. 그 사이로 빨주노초파남보 색색의 음료와 기름에 흠뻑 젖은 '옥튀볼(옥수수 튀김 볼)'을 주고받는 손길이 분주하다. 트럭의 이름은 '칠링키친', 정체는 요리하는 자동차 푸드트럭이다.

칠링키친은 올해 3월부터 서강대와 연세대 국제캠퍼스로 바퀴를 굴렸다. 푸드트럭이 캠퍼스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캠퍼스 푸드트럭 지원사업 덕분. 칠링키친의 주방장 함현근(31) 씨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서울여대 등에서 모인 창업멤버들은 트럭과 차량 개조 비용, 사무실 등을 지원받아 캠퍼스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하여 탄생한 칠링키친의 모토는 '거나하게 늘어져 쉬자'는 것!

“칠링키친의 뜻은 늘어져서 쉰다는 뜻의 영어 칠 아웃(Chill Out)에서 따온 말이에요. 요즘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 때문에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는 동안만큼은 늘어지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함 씨는 칠링키친을 통해 사라져가는 캠퍼스 문화를 되살리겠다는, 좀 더 거창한 목표도 내놔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 3박자를 갖춘 '문화 콘텐츠'로 푸드트럭을 키우겠다는 것. 외부에서 음악가를 섭외해 버스킹(길거리 음악 공연)을 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도 상영한다. 돛자리와 예쁜 조명을 빌려주거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주문을 받고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 등은 캠퍼스 푸드트럭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방식이다.

청년위 지원받아 3월부터 캠퍼스서 영업 시작

지친 대학생 위한 푸드트럭 모토는 '맘껏 쉬자'

학업과 취업에 지친 대학생들을 위로하겠다는 꿈을 지닌 함 씨 역시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늦깎이 대학생이던 함 씨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외려 창업에 눈을 뜨게 됐다.

“지난해 상반기쯤 교내 취업지원실에 찾아갔어요. 늦게 입학한

데다 서른 살이 넘도록 졸업도 못 하고 있어 초조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더군요. ‘취업이 너무 늦었다. 지금의 학점, 토익점수 갖고는 절대 안 된다. 당장 기업 인·적성검사 문제집 사서 풀고, 면접 스테디 준비하고...’ 그곳을 나오며 이렇게 취업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취업은 쳐다보지도 않았 습니다. 뭘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지인으로부터 푸드트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거다 싶었죠. 관련 규제가 하나 둘 풀어진다는 언론 보도도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함 씨의 푸드트럭은 지난해 첫 시동을 걸었다. 가진 건 매달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빌린 트럭 한 대뿐. 누군가는 푸드트럭을 노점상쯤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창업은 음식점 하나를 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차량 개조와 메뉴 개발은 물론 고객·상권 분석부터 세무, 노무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영업장 허가를 받고 각종 행사에 영업 유치를 하려면 사업소개서도 탄탄히 만들어놔야 했다.

함 씨는 교내 스타트업 육성 수업을 찾아 듣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소셜벤처 육성사업 등에 지원해 멘토링을 받았다. ‘땀 땅에 헤딩’이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힘껏 도왔다. 백석남 위커펀드 R&D 팀장과 함께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임직원의 재능 기부 프로젝트인 SK프로보노봉사단의 문을 두드린 결과였다. 일류 호텔 주방장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그의 푸드트럭에서 나오는 메뉴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고급지다’. 하와이안 그릴 핫도그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과일소다는 이름만으로도 그 품격이 느껴지고, 신선한 채소가 담백 든 포켓 샌드위치는 3000원짜리 길거리 음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알차다.

‘취업 대신 창업’ 생각 경계해야...

푸드트럭 창업자 위한 멘토링 플랫폼 만들 것

고급스러운 음식과 타깃을 정확히 겨냥한 마케팅으로 캠퍼스까지 진출한 함 씨의 푸드트럭 사업은 어느덧 6대로 차량을 늘렸다. 함 씨도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고용하는 어엿한 사장님 소리를 듣는다. 주변에선 푸드트럭을 하려면 무엇보다 시작해야 하는지 물어오는 사

람들도 많다. 푸드트럭이 꽤 괜찮은 창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되겠다는 목표는 이미 현재진행형.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멘토가 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지금 푸드트럭 시장은 일부만 돈을 버는 상황이에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이걸로 먹고살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죠. 대개 푸드트럭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회초년생이거나 노년에 은퇴한 분들이에요. 이 작은 푸드트럭만 해도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매우 큰돈이죠.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재단 등 음식점 창업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음식점과 푸드트럭은 달라요. 푸드트럭 창업자들만을 위해 저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나 함 씨는 무턱대고 푸드트럭 창업에 뛰어들어선 안 된다고 “창업이 취업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해주는 것도 이 때문. 실직 청년으로 지원자를 규정해놓은 일부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에 대해선 아쉬움도 털어냈다.

“취업이 안 돼 길거리로 내몰린 청년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해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도전이니깐요. 푸드트럭을 하나의 회사로 키워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회사를 내 손으로 일궈 다익 내믹하게 살고 싶습니다. 푸드트럭과 함께요!” **G**

푸드트럭 이동영업 본격화된다

수원시, 전국 최초 이동영업 허용

푸드트럭이 영업장소를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광경이 보편화될 날이 머지않았다. 수원시는 행정자치부가 개선한 제도에 따라 만석공원 등 7개 장소를 이동영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9월 한 달간 푸드트럭 이동영업자를 모집했다. 이는 지난 7월 12일 공유재산법령을 개정해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정부는 수원시와 서울 서초구 등 시범기관 운영 실적을 감안해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전국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푸드트럭이 이동영업 허용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축구 해설위원으로 변신 ‘그라운드의 악동’ 이천수

“라이크 잡았으니 화끈하게,
시청자 눈과 귀 사로잡아야죠”



그라운드의 악동 이천수가 방송인으로 돌아왔다. 카메라 앞에서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던 그는 지도자로서의 꿈을 말할 땐 낯빛을 바꿨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뭐라고 불러야 할까. ‘선수’라는 단어 외엔 생각이 나지 않는다. ‘방송인’은 그의 강한 개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해 보이고 ‘해설위원’이라 하자니 너무 무겁다. 그냥 이름만 부르기로 했는데 불쑥불쑥 ‘선수’란 말이 튀어나왔다. 여전히 푸른 잔디 위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는 ‘그라운드의 악동’이라 불렸던 사나이, 이천수(35)다.

사진기자의 익살스러운 포즈 요청에 더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자아내던 악동은 인터뷰를 시작하자 낯빛을 바꿨다. 마치 TV 중계를 할 때처럼. 재미있는 축구 해설을 기대했던 팬들은 그의 사뭇 진지한 모습에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는 “모험을 걸 필

요는 없다. 해설은 재미보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지난해 11월 선수생활을 끝낸 이천수는 올 9월부터 1년간 진행되는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 예선의 해설자로 변신했다. 지난 9월 1일 중국전과 6일 시리아전 해설을 진행했고 남은 여덟 경기도 모두 소화한다. 그라운드의 악동이 양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은 모습은 어색하지만 그의 해설은 먼저 데뷔한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에 뒤지지 않는다. 해설 철학도 뚜렷하다.

“올 3월부터 전국을 다니며 매주 두 경기씩 K리그를 중계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처음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 쏟아내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인터넷으로 중계 영상을 검색해 독학으로 공부했다. 하다 보니 목표도 생겼다. 축구 경기 해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 가령 선수 때 나는 밀집수비를 어떻게 뚫었는지를 관전자가 아닌 경기자의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해설할 수 있다. 난 해외 축구뿐만 아니라 K리그 경험도 많다. 해설을 하고 있는 (이)영표 형이나 (안)정환이 형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결국 K리그가 발전해야 한국 축구가 발전한다. 해설을 통해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매주 K리그 2경기씩 중계하며 초석 다져

“월드컵 예선 관건은 수비축구 이기는 전략”

이천수는 시종일관 “한국 축구는 아시아 최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다음 월드컵 본선 진출 여부에 대해선 두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축구 대표팀은 9월 예선전에서 힘겨운 경기를 치렀다. 중국전에선 시종일관 경기를 지배하며 세 골을 먼저 넣고도 어이없이 두 골을 내줘 아쉬움을 남겼다. A조 최약체로 평가받는 시리아와는 0-0으로 비기는 데 그쳤다. 조 1, 2위만이 본선에 진출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조 3위.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슈틸리케호’의 위기설이 나온다. 그러나 이천수는 우려를 일축하며 선수 기용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은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

❶ 이천수는 지난해 11월 24일 가족과 함께 선 그라운드에서 선수생활의 끝을 알렸다. ❷ 그는 연령 제한이 있는 올림픽에 두 번이나 출전했고,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모두 골을 넣은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다. 2006 독일월드컵 첫 경기 토고전에서 프리킥으로 골을 넣는 장면.



가를 내놔다.

“중국과는 골을 넣는 과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 시리아는 ‘떡잔디’ 문제가 워낙 심각했다. 실수들은 보완하면 된다. 국가대표 선수 정도 되면 경기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안다. 중국전에서 선수들에게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해주며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한 슈틸리케 감독의 모습은 훌륭했다. 하지만 그간 약체팀을 상대로 높은 승률을 쌓아온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월드컵 전까지 강팀과 많이 맞붙어 실패 경험을 쌓을 필요도 있다. 또 해외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K리그 선수들을 더 많이 기용해야 한다.”

한국은 올해 10월 6일 카타르(홈), 11일 이란(원정), 11월 5일 우즈베키스탄(홈)과 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이천수는 중동의 ‘침대축구’, 약체 국가들의 ‘선수비 후역습’ 위주의 전략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가 해놓은 해법은 ‘단순하게 하라’는 것.

“최종 예선 열 경기 모두 중국전과 같은 경기를 치르게 될 거다. 원정 경기에선 처음부터 패스로 만들어나가는 플레이보다는 공을 멀리 보낸 뒤 리바운드하는 등 단순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두 명의 선수는 역습을 대비해 수비로 더 내리고 신체조건이 좋은 원톱 공격수를 세워 장거리 킥으로 톱톡 공격하면 된다. 세계 최강의 영국 축구가 바로 이런 ‘킥 앤 러시’ 전략을 구사한다. 아름다운 축구보다 일단 승점 3점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악동도 떨게 한 ‘복면가왕’과 육아예능

“최종 꿈은 지도자로 그라운드 돌아가는 것”

한편 최근 예능 방송에서 보인 그의 활약은 이미 선수 시절부터 검증된 스타성 덕분에 놀랍지 않았다. 그러나 MBC ‘복면가왕’에서 가면을 벗고 드러난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깜놀’이었다. 은퇴한 지 5일 만에 나선 방송이었다. 방송인으로 본격 시작을 알린 그에게 개그맨 김구라는 “웰컴 투 정글”이라며 환영했다. 당시 너무 떨렸다고 말하는 그에게 “이천수도 무서운 게 있냐”고 물었다. 그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한 지 3개월까지는 계속 떨렸다. 가장 어려운 건 ‘육아예능’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천수는 아내, 딸 주은과 함께 SBS ‘오! 마

이 베이비’에도 출연했다. 공포의 대상은 방송이 아니라 아는 게 없어 무서울 게 없는 네 살배기 딸이었다는 후문.

앞으로는 하고 싶은 방송은 축구를 주제로 한 것. 그는 지난 2016 리우올림픽 때 브라질에 머물며 10개 종목의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영상을 제작해 조회수 1건당 1원을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슛 포 러브’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그와 그의 16년 지기 매니저의 팔에는 캠페인을 상징하는 팔찌가 아무지게 매어 있었다.

이제 ‘악동’이란 별명은 거들 때가 됐을까. 스타의 영광과 악동의 그림자가 모두 스쳐간 그의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은 이제 누군가의 삶의 이정표가 될지도 모른다.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학생 멘토로 임명될 예정인 그가 젊은이들 앞에 선다. 그는 “경험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건 없다. 선수 시절 내가 어떤 위기를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루 이틀을 제외하곤 방송 스케줄로 일주일이 뻘뻘하다. 그래도 최종 목표는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것. 축구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늘 놓지 않고 있다는 그는 한국 축구를 지키는 ‘그라운드의 파수꾼’이었다.

“평생 해온 게 축구다. 선수 시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축구 실력으로 욕을 먹은 적은 없다. 사람들은 축구장에 있을 때 내가 제일 멋있다고 한다. 방송을 하면서 꾸준히 지도자 자격증도 따고 있다. 나는 관중이 없는 경기장에서 은퇴식을 치렀다. K리그가 흥행할 수 있는 화끈한 경기를 선보이는 감독이 되고 싶다.” ❸

지진으로 긴급대피 시 챙길 물품은?

비상식량·응급약·손전등·현금 등 ‘생존가방’에 담아 눈에 띄는 곳 보관



기자가 직접 만들어본 생존가방. 사진엔 없지만 호루라기, 휴대용 라디오 등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생존가방 해외 직구 사이트 관계자는 “기존에는 개인 구매자보다 학교 등 단체 구매자가 많았는데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최근 개인 구매자가 5~6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일부 소비자들은 재난 대응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 제품까지 살펴보는 추세다. 일본은 지진을 항상 존재하고 준비해야 하는 위험요소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비상용품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가족 수에 따라 2인용, 3인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존가방 하나당 대략 1만~3만 엔(10만~30만 원대) 정도다.

박섯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경북 경주에 사는 박모(52) 씨는 처음 겪는 강한 지진에 큰 공포를 느꼈다. 이후 계속 이어지는 여진에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생존가방’을 아들에게 부탁해 구매했다. 그는 “가격은 20만 원 선으로 만만치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생존가방을 구매했다”며 “비상 상황에 무방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2일 느닷없이 발생한 규모 5.8의 경북 경주 지역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여진이 연일 이어지자 생수와 라면 등 식료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구호 품목을 모아둔 일명 ‘생존가방’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생존가방은 ‘72시간 가방’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지진이 나서 대피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배낭을 의미한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생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1% 급증했고, 대피 시 쓸 수 있는 천막이나 헬멧 판매량도 각각 69%, 15% 증가했다.

일본 정부 재난 시 필요한 물품 24종 발표 10만~30만 원대 생존가방 판매 보편화

일본은 재난 시 대비방법과 비상식량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책자를 도쿄도청 등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배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긴급 피난 시 필요한 생존물품 24종을 준비해놓을 것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가 소개한 생존물품은 방염가방, 동전, 물, 건전지, 손전등, 다목적 칼, 태엽 동력 라디오, 반창고, 마스크, 비상 차임벨, 사탕 등 고열량 식품, 응급약품, 밧줄, 침낭, 조리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말린 음식, 방수포, 이동식 화장실,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분말, 절연처리된 천, 접이식 물통, 장갑, 물티슈, 생리용품 등이다.

도쿄도청에서 제공한 방재 자료에 따르면 지진 경험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아이템은 손전등, 비닐봉투, 상비약, 건전지, 간이화장실 등이었으며, 이를 구비 시 유용했던 아이템이라고 언급했다.

생존가방을 직접 집에서 꾸릴 수도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kr)은 재난 발생 시 챙겨야 할 비상대피용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지나치게 무거



지난 9월 26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지진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우면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인원수대로 나누어 준비한다.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비축물품은 물이다. 물은 1인 하루 필요량인 1ℓ 기준 3~7일 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물은 깨끗한 플라스틱 병이나 단단한 용기에 보관한다. 또 가열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통조림, 미네랄과 비타민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채소주스, 고열량 식품인 가공초콜릿 등을 챙긴다. 소독약, 붕대, 테이프, 핀셋, 생리식염수, 밴드, 마스크 등과 함께 비상약과 물품이 구비된 약상자도 준비한다. 다용도 칼과 비닐봉투 여분도 챙겨두면 비상 상황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칫솔, 담요, 지도, 라이터 등도 챙겨야 하는데 휴대용 라디오의 건전지는 분리해둬야 한다. 혹시 모를 고립에 대비해 멀리서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는 필수 아이템이다.

가방은 인원수대로 나누어

문 앞과 자가용 트렁크 등에 구비

또한 재난 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시 모를 출국을 위해 여권을 챙기는 것이 좋다. 특히 현금에는 재난 발생 시 현금자동입출금기가 먹통이 될 수 있어 충분히 준비해둔다. 이 밖에도 집문서, 신분증, 보험증서, 면허증 등 자신과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복사본과 인감도장도 사전에 챙겨둔다.

유년기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의 체형에 맞는 가방을 구비한 뒤 조기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자연스럽게 가방을 메고 나갈 수 있도록 대응력을 길러주는 것도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된다.

가방의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가방을 두는 곳도 중요하다. 집 출입문과 대문 등 사고 발생 시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뒹야 한다. 눈에 확 띄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밖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가용 트렁크에도 비상용 가방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생존가방에 식품과 비품 등을 넣다 보면 무게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물품을 담는 순서도 중요하다. 황진욱 대구 웰빙산악회 회장은 “등산을 할 때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무거운 짐부터 아래에 놓고 그 위에 가벼운 짐을 올리는 것”이라며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을 번갈아 넣는 것이 몸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거운 짐이 아래에 전부 몰리게 되면 어깨와 허리에 부담감이 더해져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 따라서 생존가방을 구성하는 물품을 살 때는 최대한 경량화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누리집(www.mpp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G]**



이 밖에 재난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것들

- 생존가방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일상식품인 쌀, 물, 라면 등을 미리 비축해두면 비상 상황에 큰 도움이 된다.
- 갑자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중요한 물건 등을 챙길 시간이 없다. 귀중한 물건은 미리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다.
- 지진 등이 발생하면 떨어지는 물건이 없도록 방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무거운 물건은 미리 바닥에 내려놓고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구는 미리 전기와 거리를 두게 배치한다.
- 지진 등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할지 피난처를 미리 확인한다. 또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디서 모일지 등을 미리 논의하는 것이 좋다.
- 재해 정보 서비스를 미리 확인하고, 방화훈련 등 재해훈련을 받아두면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자료 : 도교방재 한글판

이제 ‘깜깜이 거래’는 그만, 중고차 시세 정보 확인하고 사세요!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 자동차 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중고 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부 한모(42) 씨는 얼마 전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크게 마음을 상한 일이 있다. 한 씨는 중고차를 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차량이 매물에 올라와 있어 전화를 걸었다. 해당 업체는 “차량이 있으니 지금 빨리 차를 보러 오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막상 업체에 도착하니 그사이 “차가 팔리고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다. 그러더니 같은 모델 차량 중 더 높은 가격의 차들을 계속 보여줬고, 업체 사람들의 계속된 설득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해당 업체가 허위매물로 손님들을 유인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367만 대가 거래되는 등 신차 거래의 약 2배 규모에 달한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시장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고차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 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고차를 거래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 차

중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고차의 평균 시세 정보 주기적으로 공개

중고차 허위·미끼매물도 집중 관리

우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고차의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공개하고,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항목에 대포차, 튜닝 여부, 영업용 사용 이력 등을 추가한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는 차량은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 이력 등 차량의 상세 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매매업체 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중고차 허위·미끼매물도 집중 관리한다. 이에 허위·미끼매물의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성능·상태 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성능을 점검하는 장면의 영상 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만일 거짓으로 성능 점검을 했을 경우 1회 적발 시 성능점검장 영업 취소,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 시에는 매매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매매 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3회 적발 시 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한다.

한편 매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도 병행한다. 먼저 중고 자동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무상 수리기간 안의 자동차 장치에 대한 중복된 보증 의무를 자동차 제작자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 적용을 재검토한다. 이와 함께 중고차 취득세와 관련된 최소납부 세제 개선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와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

“나중에 더 받자” 국민연금 재테크 인기 수령 연기 땀 연 7.2%씩 수령액 늘어나



한 주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임의가입을 통해 월 4만 7340원씩 10년을 납부하면 65세부터 월 14만3900원(올해 기준)씩 평생 받을 수 있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100세 시대’에 국민연금은 불안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대비책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현명한 노후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 내면 평생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오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최근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다. 수령을 늦추는 만큼 혜택이 크다. 현재 1년 미룰 때마다 7.2%가 더 붙어난다. 예를 들어 월 122만 원을 받는 사람이 5년을 미루면 36%가 더 많은 월 16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초저금리 국면에서 7.2%의 가산금은 큰 매력 아닐 수 없다. 연금 수령 자체를 늦추지 않고 일부분(연금 수령액의 50~90%까지 10% 단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정 규모 소득(근로소득공제액과 필요경비 공제 후 월 210만원)이 있으면 65세까지 연금액 일부가 깎이고, 연금소득을 더해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일정 소득이 있는 연금 수령자라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게 현명한 재테크인 셈이다.

만 60세가 되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금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들은 2010년 4만9381명에서 6년 새 5배가량인 25만 명대로 늘었다. 더 낸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시대 맞아 추후납부, 임의가입자 늘어나

월 4만7340원 10년 납부 시 14만3900원 수령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유예된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신청자도 늘고 있다. 추후납부 신청 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5년 5만 824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6월 현재 3만7663건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해 11월 말부터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약 438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낸 보험료는 60회에 걸쳐 나눠 내면 된다.

모든 전업주부가 추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간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1999년 4월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추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도 2010년 9만 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7만 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는 임의가입을 하려면 최저 99만 원 이상의 월 소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소득 기준이 월 52만 6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저 월 연금보험료(소득의 9%)가 현행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아져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이 한결 쉬워진다. 최저소득(월 52만6000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10년간 4만7340원을 납부했다면 65세부터 월 14만3900원을 받게 된다. **6**

문화재는 국가의 얼이자 민족의 자부심 이제는 지진대비책도 세워야 할 때다

©동아DB



1



©문화재청

2

1 지난 6월 23일 2008년 화재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서울 중구 송례문 광장에서 열린 '파수(把守)의식' 재현 행사 모습.
2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경주 지진 직후인 9월 13일 첨성대를 정밀 계측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이대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다른 곳도 아닌 경주. 그래서 유례없는 강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놀라움과 걱정은 더 컸다고 한다.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원전이고, 또 하나는 문화재였다.

경주 인근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많다. 월성을 비롯해 동해안을 따라 고리, 울진에 원전과 방폐장이 늘어서 있다. 대한민국 어디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다. 그래서 놀라움은 더 크다. 불과 5년 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지고, 그 여파로 유출된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지를.

다행스럽게도 우리로서는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강진이지만, 동일본대지진의 9.0과 비교하면 그 충격이 아주 미약한 편이고, 진앙지가 육지여서 쓰나미를 몰고 오지도 않았다. 더구나 우리의 원전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내진 설계가 거의 완벽해 이 정도 지진에는 끄떡없다. 실제로 이번 지진에 손상 이 가거나 이상이 생긴 원전은 없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일은 아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아님이 확인됐다. 더구나 원전이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활성단층이 뻗어 있다. 언제 어떤 사태가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 만에 하나 원전이 잘못되면 그 피해 지역 규모와 복구시간과 피해 대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보 1호 송례문 소실에 함께 무너졌던 국민의 자존심

한번 무너진 문화재는 다시 세우기 힘들어

그나마 원전은 낫다. 건설 때부터 내진 설계를 했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과 강화가 가능하고, 최첨단 과학과 기술로 얼마든지 지진에 대한 사전 대비도 가능하다. 그에 비하면 문화재는 무방비나 다름없다. '천년 고도'인 경주는 도시 전체가 문화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대보탑, 성덕대왕신종, 황룡사 터, 석빙고 등 국보와 보물만 150점이 넘는다. 이렇게 오래된 유적과 유물이 즐비한 도시가 세계에 많지 않다.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관광 자원의 보고인 경주

가 이번 지진으로 흔들거렸으니 국민들 모두가 “문화재는?” 하고 걱정하고 놀란 것은 당연하다. 지난 4월 규모 7.0의 지진으로 일본의 유서 깊은 구마모토 성루와 지붕, 담이 무너지고 성채가 아슬아슬하게 절벽에 걸쳐 있는 것을 뉴스로 봤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8년 전에 일어난 문화재 소실에 대한 엄청난 충격과 아픔이 있다. 날짜도 잊지 못하는 2008년 2월 10일,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조선 왕조의 상징인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탔다. 그 불길에 국민의 가슴도 불탔고, 무너져 내리는 숭례문 지붕에 국민들의 자존심도 무너져 내리는 참담함을 맛보았다. 비록 지진이 아닌 화재였고, 자연재해가 아닌 방화에 의한 인재이기는 했지만, 그때 우리 국민들은 문화재가 단순한 옛 역사의 흔적이나 유산이 아니라 국가의 얼이고, 민족의 자부심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이번 지진에 불국사와 첨성대, 석굴암을 걱정한 것은 당연하다. 한번 무너진 문화재는 쉽게 다시 세울 수도 없다. 숭례문도 그나마 서둘러서 5년이나 걸렸다. 복구 수리를 시작한 일본 구마모토성도 재건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긴 시간과 공을 들여 복구한다 해도, 똑같은 모습을 되찾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무너진 자존심과 역사를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함을 숭례문은 말해주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불국사 대웅전 기와가 깨지는 등 경주의 문화재들도 줄잡아 100여 곳이 크고 작은 손상을 입었다. 주로 지진에 약한 목조 건축물에 집중됐지만 그나마 그 정도인 것이 우리로서는 다행이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석조물 첨성대와 석굴암에 별 피해가 없는 것은 ‘천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지진이라는 재앙은 땅을 흔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남겨놓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드러나지 않는 내상까지 첨단 과학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진단해 치료해야 한다. 자칫 그 작은 상처가 원인이 되어 문화재 전부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운에만 맡기고 구경하고 있거나,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뒤흔숨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다. 이번 지진처럼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

만, 미리 대비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숭례문과 강원도 낙산사 소실로 화재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대책은 많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진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기에 지진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대비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있어봤자 형식적이었다.

문화융성의 토대 문화유산 보존 위해

지진 취약점 분석 후 대책 마련 시급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했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어떤 문화재의 어느 곳이 취약한지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쉽지 않다. 문화재는 원전이나 빌딩과 달리 안전을 위해 함부로 바꿀 수도, 뜯어고칠 수도 없다. 원형이 손상되면 아무리 오래 견디게 한들 유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지진 전문가들과 문화재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진대책에 관한 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노하우와 기술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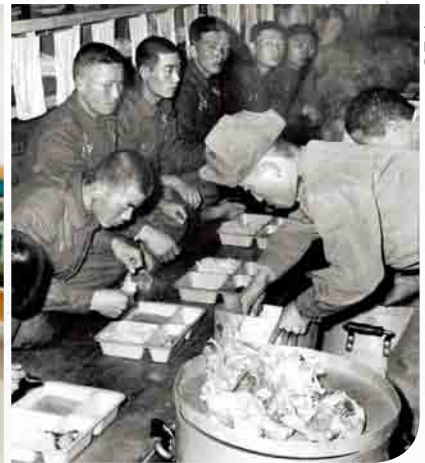
“설마, 이런 일이 다시 생길까?”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번 경주 지진이 아주 예외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나갔으니, 수백 년 후에나 다시 올 수도 있다. 지형이 다르니 다른 곳은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재앙은 늘 그런 방심과 안전불감증을 비웃듯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문화융성을 위해서 문화유산의 보존만큼 가장 먼저이면서 중요한 것도 없다. 수백 년, 길게는 천 년이 넘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 삶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그 바탕 위에서 문화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새로운 바탕을 마련한다. 삶이 그렇듯 문화도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드라마와 영화와 가요에 불고 있는 한류가 그렇다. 그래서 국민들은 걱정한다. “천년 고도 경주는 정말 괜찮으냐”고. **G**



군인 복지정책

경제적 복지에서 문화·인권 복지로 발전 ‘군인 자긍심이 최강의 전투력’ 인식



1970년대 군 내무반 풍경(오른쪽). 지금은 개인침대를 쓰고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병영생활이 크게 개선됐다.

김병희 |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전 한국PR학회 회장

● 아들의 면회를 다녀온 부모들은 대체로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말하는 듯하다. 군대가 좋아졌다는 인상은 정부에서 오랫동안 추진 해온 군인 복지정책의 결과다. 국방부는 2006년 군 사회복지를 ‘현직자들에 대한 사기 양양을 통해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군 조직 구성원과 그 가족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에게 정신적·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 급부, 시설 및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한국군 사회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유흥위, 2008)’에서는 우리나라 군인 복지정책의 변화 과정을 창군 및 전란기, 태동기, 형성기, 성장기, 발전기, 재편·비전기로 구분했다. 이 구분에 따라 군인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살펴보자.

창군 및 전란기(1946~1950년대)에는 군인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준이라 본격적인 복지정책은 없었다. 정부는 병사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했고 간부와 그 가족에게

는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했다. 6·25전쟁 이후에는 피해 복구에 치중했고 직업군인의 보수도 열악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발생한 부상자나 그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복지정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태동기(1960년대)에는 군인 복지정책이 입법화되고 직업군인의 복지 혜택이 사회 일반의 복지 수준보다 높아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군사원호법(1961)을 시작으로 전몰군경유가족법, 상이군경연금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군사보험법, 군인연금법이 제정됐다. 1962년에는 계급별 호봉제가 도입됐고, 1964년에는 가족수당이 신설되는 등 장병과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됐다. 정부에서도 국토방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는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인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입법화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형성기(1970년대)에는 군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마련됐다. 1972년 군인자녀교육법이 제정돼 중·고교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했고, 군인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군 자체적으로도 복지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상여수당(1974), 조정수당(1979), 정근수당(1979)이 신설돼 경제적 복지 수준을 높여나갔다.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복지 실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사회보다 앞서 있었다.

성장기(1980년대)에 정부는 군인 복지정책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부분적 복지를 실행하면서 군 관사 건립 5개년 계획 같은 중·장기 계획도 추진했다. 1981년 원호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군인복지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같은 해 복지근무지원단을 창설해 각 군별로 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했다. 1984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현역은 물론 제대 군인이나 그 가족에게까지 복지 혜택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1984년 제정된 군인공제회법은 군 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를 설립하는 근거가 됐다.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했다.

2000년대 이후 군인 복지정책에 문화 개념 도입

현 정부, 국군외상센터 건립·병상해보험제도 등 실시

발전기(1990년대)에는 군인 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다. 1991년 4월 국방부 인사국 복지과의 기능을 확대해 보건복지국을 창설하고 종합복지정책을 추진했다. 1995년에는 군 복지시설의 운영지침을 마련했고, 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전력을 향상한다는 목적에서 군인복지기금법을 제정했다. 1997년에는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대 군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밖에도 이 시기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무렵에는 군인복지보다 사회복지가 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됐다. 군인은 물론 군인의 가족에

게까지 복지정책의 영역을 확대한 시기였지만, 사회복지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군에 필요한 우수 인력과 장기 복무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재편·비전기(2000년대)에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경제 질서가 변하고 사회복지 비용도 증가하면서 군인 복지정책에 문화의 개념이 도입됐다. 2005년 8월에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가 도입됐고, 11월에는 군사회복지사 도입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2006년에는 사병 복지와 인권 개선 연구가 시작됐고, 2008년에는 군인복지기본법이 시행됐다. 2008년 9월에는 육해공군 복지단이 국군복지단으로 통합되어 기능을 확대했다.

2008년 수립된 제1차 군인복지기본계획(2009~2012)에 따르면 복지의 영역은 기초복지, 가족복지, 문화복지, 복지 인프라로 구성된다. 기초복지에는 보수·주거 지원, 의료 지원, 전직 지원, 병사 복지 지원과 군인연금 지원이 해당됐다.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병 휴가비 인상, 병 후유장애 보상제도 신설, 국군외상센터 건립, 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계룡대 문화·복지센터 건립, 전방지역 병사 전용 복지시설 건립 등을 추진함으로써 장병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모색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중 사고사를 당할 경우 군인복지기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병상해보험제도가 시행됐고, 임신한 여군을 위한 모성 보호 복지정책도 추진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2000년대 이전까지 경제적인 복지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문화적 복지 개념을 도입해 군인 복지정책을 전개했다. 군인의 직업 여건이 불리해질수록 국토방위의 최후 보루인 군인의 사기가 저하될 위험성이 커진다. 따라서 국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군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전력 증강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는 그동안의 경험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인 복지정책이 진화했을 때 군인들의 애국심도 진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군인 복지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군인에게 자부심이나 자긍심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을 얻을 테니까. **G**

생활 속 '계단 오르기' 인기

툼툼이 오른 계단, 매일 좋아지는 건강



인천시 부평구 인천지하철 부평역에 설치된 '피아노 건강계단' 모습.

박싯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0.15kcal, 4초.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모되는 칼로리와 연장수명 시간이다. 생활 속 운동 '계단 오르기'가 인기다.

직장인 김예진(32) 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한다. 김 씨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 출퇴근 시간에 운동을 하고 계단을 오르고, 회사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사무실까지 올라간다"며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다리 근력이 생기고 살도 빠지는 기분이 들어 좋다"고 말했다.

이시형 신경정신과학 박사는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 "계단을 오르는 것은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특히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좋은 습관으로 '하루 100계단 오르기' 실천운동을 내세우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시민들에게 계단 오르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회는 시의회 청사 계단을 건강계단으로 꾸미고 벽면에는 올바른 계단 오르기 방법 등의 건강 정보를

게시해놓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3년 인천지하철 4곳에 피아노 건강계단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계단 오르기 소모 칼로리, 빨리 걷기의 2배

근력 강화스트레칭 효과·심혈관계질환 위험 감소

계단 오르는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기 힘든 현대인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고 근력 강화는 물론 치매 예방 등의 여러 건강상 효능이 입증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30분 당 칼로리 소모량이 산책 63kcal, 약간 빠르게 걷기 120kcal, 계단 오르기 240~300kcal가량으로 계단을 오르면 빨리 달리기와 같은 중강도 이상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제대로 계단을 걸으면 근력이 강화돼 무릎 관절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스트레칭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계단을 오르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다만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 계단을 오른 뒤 내려올 때 몸에 무리를 느끼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좋다.

계단 오를 때 자세도 중요하다. 우선 올라갈 때 무릎을 끝까지 펴야 하고,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리를 숙이고 발 앞부분으로 걷는 자세는 심폐를 압박해 호흡이 금방 가빠지기 때문에 계단을 많이 오르기 힘들다. 허리, 고관절, 무릎에 부담이 큰 어르신들은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붙이고 상체를 곧게 세워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는 것이 좋다. G

더 쉽게, 더 건강하게 계단 오르는 방법은?

• 계단을 오를 때 불필요한 힘을 최소화하자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발은 앞부분만 계단에 두는 동시에 뒷발의 무릎을 펴고, 또 엉덩이를 앞으로 당기고 가슴이 압박되지 않도록 허리를 바르게 펴야 숨이 차지 않고 가볍게 계단을 오를 수 있다.

• 무릎을 펴는 힘과 팔을 흔드는 힘을 함께 활용하자

종아리의 힘을 빼고 무릎을 펴는 근육만 사용하면, 체중이 뒷다리에 있기 때문에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게 되면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만 사용하게 돼 더욱 오래, 손쉽게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할 수 있다.

모르면 사라지는 각종 마일리지 똑똑하게 이용하면 짭짤한 보너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게 휴대전화고 신용카드다. 그런데 사용 실적에 따라 쌓이는 휴대전화·신용카드 마일리지의 해마다 수 천억 원씩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누구나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소지자에게는 최소 3만 원 이상의 포인트가 주어져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멤버십카드 발급비용이 전체 가입자의 40%가 안 된다. 당연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멤버십카드 발급방법은 간단하다. 휴대전화에서 고객센터(국번 없이 114)로 전화하거나, 각 업체별 인터넷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멤버십카드 포인트와 별도로 각 통신사에서는 통신요금 1만 원 마다 약 50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가 마일리지의 존재를 몰라 전체 마일리지의 70% 이상이 유효기간(7년)이 지나 소멸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소멸된 통신사 마일리지가 연평균 400억 원에 달한다.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통화로나 휴대전화 애프터서비스(AS) 비용 등을 결제할 수 있고,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입자는 본인의 마일리지 현황을 각 통신사 누리집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신용카드 마일리지 매년 수천억 원 소멸

항공사 마일리지 가족 합산 사용 가능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마일리지도 매년 1300억 원 이상씩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마일리지 소멸을 청구서, 이메일, 문자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해당 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마일리지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자사 카드의 포인트를 자사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와 통합해 우리은행은 '위비꿀머니', 하나은행은 '하나머니'로 제공한다. 1만 머니(1만 원에 해당) 이상이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계좌로 나눠줄 수도 있다.

비행기를 탈 때, 제휴 신용카드를 쓸 때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도 2018년부터 소멸된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 1일,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마일리지 소멸된다. 단,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말 이전,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9월 말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항공사 마일리지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대한항공 1조7018억 원, 아시아나항공 4920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 무료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혜택을 받기 위해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하지만 실제 필요한 성수기 때는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예매가 불가능에 가깝다. 좌석 업그레이드도 장거리 노선에 집중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계열사 호텔 이용, 렌터카, 여행상품 구매, 민속촌 등 여행지 입장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는 CGV, 메가박스 등의 영화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 금호아트홀·미술관의 전시회와 강좌도 이용할 수 있고, 금호리조트, 아산스파비스, 화순아쿠아나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음악회 입장권과 농·특산물, 학용품 등 매달 특정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이벤트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를 가족에게 양도하여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놓은 각종 마일리지를 똑똑하게 이용하면 짭짤한 보너스가 될 수 있다. **G**



© 동아DB

잠자는 자세에 담긴 비밀 집안 내력과의 관련 있네

김창엽
자유기고가

● 김모 할아버지는 80대 초반이다. 그는 나이로는 증손자뻘인 네 살짜리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곤 한다. 40대 후반인 막내아들이 늦둥이를 보는 바람에 김 할아버지는 80대 중반의 나이에 “육아 도우미를 하고 있다”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그는 나이 들어 어린 손자를 돌보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점들도 있다고 말한다. 최근 김 할아버지가 손자를 관찰하면서 신기하게 느낀 건 손자의 잠자는 자세였다.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면, 어린아이는 엎드려 재우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손자 녀석이 천장을 보게 뉘어놓아도 어느새인가 엎드린 자세로 바뀌 잠을 자는 겁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자신이 평생 엎드려 잠을 자왔다. 그는 평소 피곤해도 천장을 보는 자세로 누우면 잠을 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니 천장을 보게 하고 뉘어도 금세 엎드리는 자세로 변하는 손자의 수면 자세가 남달라 보이는 것이다.

사실 김 할아버지네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사람은 그와 손자만이 아니다. 그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3대가 모두 엎드려 자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는 김 할아버지가 잠자는 자세를 ‘집안 내력’으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수면 자세가 생래적인 것일 개연성이 높다는 데 공감을 표한다. 김 할아버지네 3대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수면 자세를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수면학자나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렇다면 바른 수면 자세가 있을까?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천장 보는’ 자세가 ‘올바른’ 수면 자세인 것처럼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면 자세에는 정답이 없다는 쪽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기우는 경향이 있다. 저마다의 수면 자세가 있고 자세마다 장단점이 있어 일률적으로 어느 자세가 좋고 어느 자세가 나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면 자세에 ‘정석’은 없지만, 수면 자세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천장 보는 자세, 엎드린 자세, 모로 누운 자세,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 등이 그것이다. 이들 대표 수면 자세는 각각의 신체적, 물리적 장단점이 뚜



©shutterstock

저마다의 수면 자세가 있고 자세마다 장단점이 있어 일률적으로 어느 자세가 좋고 어느 자세가 나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렷한 편이다.

예를 들면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엎드린 자세가 천장 보는 자세보다 입천장 등에 대한 압력이 적어 숨을 쉬는 데 좋다. 반면 엎드린 자세는 허리에 부담이 크고 목 뒤가 뻣뻣해지기 쉽다. 일부에서는 모로 누운 자세가 호흡이나 허리 등에 대한 부담이 중간쯤이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저마다의 잠자는 자세가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엎드려 자는 사람은 목표 지향적이고 완고한 성격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모로 누운 자세는 타협적인 사람들에서 흔히 발견된다고 한다. 또 천장을 보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비즈니스 기질이 농후하며, 태아처럼 이불이나 베개 등을 껴안고 웅크려 자는 사람들은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잠자는 자세와 성격의 관계를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성격이 타고나듯 수면 자세 또한 태생적일 확률이 커서 둘 사이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도 성급할 듯하다. 쥐 죽은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설령 수면에 빠져든다 하더라도, 잠자는 자세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6**

맛깔스러운 영국 여행기 통찰력과 유머는 덤

김성희
북칼럼니스트

● 이름만으로 선뜻 선택할 수 있는 저자가 있다. 미국 태생으로 영국에서 활약하는 저널리스트 빌 브라이슨이 그중 한 명이다. 꼼꼼한 취재와 익살스러운 문체가 어우러진 그의 책은 어떤 주제를 다뤘든 믿고 펼쳐도 된다. 유익하면서도 유쾌하기 때문이다.

이건 주관적 평가가 아니다. 국내에 번역·출간된 그의 책이 20종에 가깝다. 유명 작가가 아니면서도 이 정도로 사랑받는 저자는 드물다. 게다가 여행기, 과학사, 언어, 역사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면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덕분이다. 실제 출간되던 해 ‘올해의 책’으로 수차례 꼽혔던 <거의 모든 것의 역사>(까치)와 애플레치아 트레일에 도전한 명량한 기행문 <나를 부르는 숲>(동아일보사)이 같은 저자의 작품인 걸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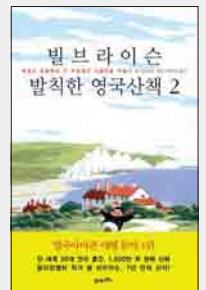
이 책 역시 브라이슨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책이다. 제목이 시사하듯 영국 여행기로 영국 시골마을을 답사한 기록이다. 한테 책 머리의 영국 전도(全圖) 한 장 빼고는 지도나 풍광 사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이색 기행문이다. 그 대신 꼼꼼한 정경 묘사와 숨겨진 지역사를 소개하는 데 이게 여간 맛깔스러운 게 아니다.

“버스 이름은 ‘연안정기버스 700’이었다. 미끈한 몸체에 세련된 외관, 터보 엔진이라도 달려 있을 법한 이름이었다… 내가 상상했던 그 무것도 없었다. 비좁은 단층 버스는 마치 죄수들과 함께 어디론가 호송될 때 탈 법한 그런 차였다.”

여행 출발지인 보그너레지스에서 브라이턴으로 가는 시외버스 이야기다. 지은이는 거기서 ‘열간이 행성’에서 온 젊은이를 만난다. 제 머리보다 몇 치수는 더 크고 뺨은 다리미로 누른 듯 평평한 야구모자를 쓴 젊은이는 “이어폰으로 요란한 음파를 텅 빈 두개골로 보내고 있었다. 그의 두개골 속 공간은 아득하게 멀리 떨어진 별과 별 사이만큼이나 공허할 것”이라 추측한다.

‘영국의 책마을’로 거듭나려 안간힘을 쓰는 세드버그의 카페에서 유명 모델 케이트 프라이스의 자서전을 만나는 장면은 압권이다.

“이 책은 그녀의 다섯 번째 자서전이었으며 나이가 25세임을 생각하면 자서전을 아주 많이 낸 편이다. 소설도 다섯 권이나 썼는데 그녀가 낸 이 모든 책들은 그녀의 국제 비즈니스 왕국 운영과 최소



발칙한 영국산책 2

빌 브라이슨 지음 | 박여진 옮김 | 21세기북스 | 496쪽 | 1만6000원

한 한 개당 30kg은 나갈 것 같은 무거운 가슴을 달고 살아가는 삶을 지탱해준다.”

지은이는 프랑스와 마주하고 있는 영국 남단의 보그너레지스에서 직선거리로 영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케이프래스를 여행하며 좌충우돌한다. 험악하며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다 바짝 뒤를 쫓아오는 운전자에 열을 받아 끔찍한 병에 걸려 확 죽어버리라며 저주를 퍼붓는가 하면, 주방장이 없다며 주문을 거절당해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온 마을을 돌아다니고, 종착지인 케이프래스 목전에서 캐나다에서 온 할머니와 배표 예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식이다. 지은이는 이 모든 과정을 예리한 통찰력과 건강한 유머를 통해 오늘날 영국의 최고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전해준다.

이 투덜이 노 저널리스트가 쓴 영국 기행문은, 실은 두 번째다. 그런데 어쩌다 이 책을 읽으면 지은이의 다른 책을 찾아 읽고 싶어 질 것이라 장담한다. 어느 여행책에서 볼 수 없는, 낯선 영국 시골의 풍광과 인심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브라이슨의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그의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 실감날 터다. **G**

로댕의 승화와 몽크의 불안 사이에서

● 나쁜 버릇이 있다. 언젠가부터 운전을 하면서 짐짓 '생각하는 사람' 흉내를 내는 게 그것이다. 운전대를 오른손으로만 잡은 채, 왼손으로 턱을 괴고 운전하는 일이 잦다. 가족이 염려하며 만류하는 바람에 요즘은 많이 고쳤지만, 한동안 '생각하는 운전자' 행세를 많이 했던 것 같다. 돌발 상황에 취약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안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나쁜 버릇임에 틀림없다.

젊었을 때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로댕전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오래 상념에 젖은 적이 있다. 그 무렵은 생각하기보다 실천적 행동이 중시되던 때였다. 그럼에도 지옥의 문 아래에서 오른손으로 입 부분을 꺾어 채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로댕의 작품은 숙고와 통찰의 어떤 경지를 암시하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 실천하기 위한 생각,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생각 등등 여러 생각들이 이어졌다. 어쩌면 그때의 느낌이 훗날 생각하는 운전자 형상을 빚어냈는지도 모른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프랑스 파리의 로댕미술관에 가서 그 작품을 다시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쩌면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고통스럽고 음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을 견디며 영혼의 승화를 위한 도저한 성찰을 한다. 입을 떠받친 손과 팔 근육의 강한 인상이며, 눈 부분의 깊이가 새로웠다. 또 턱을 괴지 않고 입을 떠받친 것 또한 그랬다. 말을 하기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영감을 길어내려는 성찰자의 결기 같은 것이 느껴졌다.

몽크의 '멜랑콜리 : 해변에서'의 사내도 언뜻 보면 '생각하는 사람'을 닮았다. 그림 뒤쪽은 청춘 남녀가 해안가를 다정하게 걷는 풍경이다. 그런데 사내는 홀로 턱을 꺾어 채 음울한 생각에 잠겨 있다. 바다며 백사장, 노을 등 주변 풍경은 전반적으로 불안과 공포로 출렁인다. 멀리 시커먼 산세는 불안의 기운을 더더욱 깊게 한다. 혹시 사랑했던 연인을 상실한 것일까. 그래서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슬픔, 세계가 곧 파국에 이를 것 같은 공포에 휘감긴 것일까.

몽크는 물론 로댕의 작품 역시 멜랑콜리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다만 한쪽은 비참한 파국으로 치닫는 형상이고, 로댕의 '생각하

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평론가

는 사람'은 영감에 가득 찬 상태로 나아갔다.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아래를 집요하게 응시하지만, 역설적으로 승화의 예감을 갖게 한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슬픔은 있다. 쉽게 드러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울한 멜랑콜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깊이 있게 내면화해 웅숭깊게 형상화하는 창의적 예지를 보이고, 또 어떤 이들은 파국의 광기에 빠질 수도 있다. 아니다. 어쩌면 양극단처럼 보이는 그것은 내적인 쌍둥이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멜랑콜리의 에너지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것 같다. 그러니 어느 한 지점, 한 순간의 상태나 풍경에 휘둘리거나 노여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긍정적 생각대로만 살도록 두지 않는 것이 또 멜랑콜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을비가 내린다. 안개가 시나브로 짙어진다. 가을이 깊어지면 멜랑콜리도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올가을 나의 내면은 어떤 풍경의 프리즘을 보일 것인가. 로댕의 승화와 몽크의 불안 사이 그 어디쯤일까. 그런 상념에 젖어들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다시 왼손으로 턱을 꺾는다. 갑자기 전면에서 초록 신호가 노랑으로 바뀐다. 앗, 이게 아니지, 다시 손을 운전대로 가져간다. 나쁜 버릇은 쉬 고쳐지지 않는 것인가 보다. **G**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공익신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보호

-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조치 금지
- 형벌·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신고

- 홈페이지(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대상 : 5대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안전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등

환경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소비자
이익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등

공정
경쟁



기업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등



국민권익위원회



해내는 大韓民國!

우리는 자랑스러운
大韓國人입니다!



대한민국정부
korea.go.kr